朝鮮日報 夕刊 九日(木) 本紙夕刊十二面

獨、空陸에自信얻고 海軍擴充에邁進

八島에要塞構築코地下에大砲埋藏 北海諸島의鐵壁陣

【倫敦發電】英國側의 信頼할 調査에 依하면 獨逸의 軍事費는 一九三六年末까지에는 넉넉히 七十七億弗에 達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空、陸의 軍備擴張을 大略 完了한 나치스獨逸은 다시 海軍擴充에 全力을 傾注하야 目下 海上으로부터의 攻擊에 備하기爲하야 北海及 발틱海沿岸에 要塞의 連鎖를 大速力으로 建造中인바 此等要塞는 同時에 充實한 空軍根據地도 될터이라고한다。볼드윈英首相은 前週 下院에서 英國이 入手한 獨逸再軍備에關한 秘密情報가 正確한데 滿足을 表하엿는데 右情報에 依하면 獨逸은 헤리골란드島外에 北海에서 八島에 要塞를 構築하고 此等諸島는 通信設備、地下倉庫、航空機繫留設備、武器修理材料等을完備한 海軍飛行機根據地로 一變되어 地下室에 軍隊가 駐屯하고 高射砲、機關銃網이 벌려잇스며 沿岸一帶에 大野砲가 무처잇다 此等要塞가 構築된 島嶼는 봄쿰、놀데나이、랑게오ー그、스피케로ー그、질트、슐레스위히·홀스타인沖의 왼크、발틱海의 니데니ー、제ー렌、위ー크、북크、로짓텐의 諸島이다。(寫眞은 히틀러氏)

獨伊接近濃厚

獨墺伊三國協定을機로

【羅馬八日發同盟】最近獨伊接近ー太利外務省側의 放送은 右演說ー國政府間에 墺太利의 獨立保障說이 頻繁히傳하고잇는이때에 伊을 裏書하야 近近獨、墺、伊三ー領土保全의 三國協定이 成立될 可能性이 濃厚化하엿다 이것을 第一着手로 獨伊接近은 一層拍車를 加하게될터로 宛然 이에 大戰前의 三國同盟이 復活되어 歐洲政局을 다시 一步 新展開에 進할것으로 豫想된다

伊爆擊機不時着 搭乘者十名慘殺

【羅馬八日發同盟】에디오피아의 짐마州에서 空爆演習中인 伊太利軍爆擊機는 機關故障으로 不時着한때에 搭乘한氏名不詳將校一名、로카텔리大尉、米國飛行家 스미드氏、넬손氏外 六名은 附近에 潛伏中인 에디오피아土民兵에게 慘殺되엇다고 當地에 報道가잇섯다 但 伊太利政府當局은 右報道를 極力 否定하고잇다

二中全會압두고 英、調停에進出

【廣東八日發同盟】二中全會를目前에압두고 英國駐中官憲은 南京廣東兩當局者에 對하야 相當深刻한 調停運動을 試하고잇는데 西南派某要人의 談에依하면 廣東駐在 英國總領事는 最近자조 陳濟棠 李宗仁 林雲陔等을 訪問하고 擧國的攻擊運動의 停止와 南北合作을 勸告하고잇다 他方 英國大使館도 亦是 今日政府의 뜻을바더 國民政府에對하야 南北武力衝突의 國際關係에 及하는 不利와 財政經濟上의 影響을 說하고 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圖하도록 極力 勸告中이라고한다 英國側이 二中全會直前에 이調停에 出馬한것은 陳、李、白의 各領袖必死의 軍備擴張과 交戰準備에 不拘하고 蔣介石氏의 武力解決과 熾烈한 大衆運動으로 內部的危機를 誘起하야 西南派의 軍事行動의 弱體化에 乘한것이라고 보인다

伊政府의 로會議招請狀手交

【羅馬八日發同盟】羅馬駐箚白耳義 代理大使오할드伯은 八日 伊太利 外務省에 차노外相을 訪問하고 七月二十二日부터 부륙셀에서開催할 豫定인 第四次로카르노會議에 伊太利政府의 參加招請狀을手交하엿다 右招請狀을바든 차노外相은 九日中에 어떠한 回答을할것을 言明하얏다

瑞典對伊制裁撤回

【스톡홀름八日發同盟】瑞典政府는 聯盟總會의決議에 基하야 對伊制裁를 七月十五日 撤去하기로 決定하엿다

리氏意見을主로 對日方針決定

二中全會紛糾難免

【上海發電】二中全會의 最大議題인 抗日問題는 南京政府部內에서도 各各 二立場에서 一致되지안허 十日 開會될 二中全會는 西南의 抗日、北中의 日中關係를 繼續하고 벌서 紛糾가 豫想되는데 今日의 情勢로보면 抗日問題는 蔣介石氏의 「目下의 情勢는 그時期가아니다 戰爭의 自衛 全力에 努力하야 對日戰備를 整備할것이다」라는 主張이 多數의 支援을어더 通過될것이며、또 北中問題는 이번 會議에서 調整하야 事態의 最惡化防止에 努力한다는데 一致될터로 따라서 對日交涉의 方針은 리드로스氏의 意見을 容認하야 北中經濟問題로부터 解決한다는 張外交部長一派의 意見이 勝利를占할것으로 豫想된다、그리고 北中問題의 解決方針에 關하야 리드로스氏가 南京政府에 提出한 意見의 骨子는 如左한것이라고 傳聞된다。

一、日中關係는 北中問題로부터 解決할것을 要함

二、北中의 密輸防止는 塘沽停戰協定의 廢止、冀東政府의 取消를 要함

三、第二項의 解決에는 北中의 日中情勢를 緩和하야 政治協定締結을 要함

四、北中關稅問題를解決함을要함

五、第四項의 解決에는 密輸對抗品의 稅率을 引下하고 密輸沒收品은 賣却하야 이를 冀東政權의 收入으로할

六、關稅收入의 分配를 決定할

七、關稅問題解決을 爲하야 中國稅關關係의 日中英三國人으로써 委員會를 組織하야 研究할

八、關稅問題解決은 密輸를 防止하고 中央收入을 增加하므로 中央의 損失이 되지안는다

九、北中鐵道建設의 資源其他

(寫眞은 蔣介石氏)

開化縣城 共產軍이占領

【上海九日發同盟】江西安徽省境에 가까운 浙江省南部인 開化縣城은 八日 突然 共產軍에게 襲擊을바더 占領되엇다 共產軍은 占領과同時에 卽時 監獄을 開放하야 囚人을 釋放하고 또 全市의 큰商店은 남기지안코 掠奪하엿스며 各官署는 全部灰燼에歸하엿다 開化는 浙江省西部所在地로 杭州로부터 約二百키로의 地點이다

今井武官上海急行

【北平八日發同盟】七日夜 北平을 出發한 參謀本部 第二部長渡中將及 高橋中佐에 잇서서 今井北平駐在武官은 突然 八日午後三時 北平發 上海로 向하엿다 同武官은 上海에서 열리는 中央現地武官會議에 列席하야 北中、情勢、冀東政權의 動向等에 關하야 重要報告를 할터이다

英蘇正面衝突로 海峽會議決裂乎

蘇聯代表脫退도不辭

【몬트르八日發同盟】몬트르會議는 英國의 第十六條(戰時의軍艦의 海峽通過)條項을 圍繞코 英蘇의 意見對立이 俄然激化하야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八日 本國政府로부터『蘇聯政府의 主張이 容認되지안흘 境遇에는 會議를 脫退하고 歸國하라』는 訓電을 接受하게되엿다 蘇聯政府의 訓電要旨는 如左하다

戰時의 蘇聯軍艦의 黑海出入에 關한 完全한 自由의 主張이 容認되지안흘 境遇에는 速히 會議를 脫退하고 歸國하라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이 右訓電을 接한結果 海峽條約改訂會議는 벌서 流產危機에 直面하게되엿는데 蘇聯代表部는 八日 會議終了後 會議脫退에 關한訓電接受의事實을 確認하고 如左히 言明하엿다

蘇聯代表가 會議脫退의 訓電에 接한것은 事實이다 大體 英國政府의 態度는 海事에 新條約成立을 妨害하려는 意圖라고 解될수밧게업다 蘇聯政府로서는 斷然 英國政府의 修正案에 應할수는업다

【몬트르八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會議는 八日午前十時부터 開會하고 英國代表가 提出한 修正案 第十六條『戰時의 軍艦의 海峽通過』에 關하야 審議를 繼行하얏는데 前日同樣으로 英蘇兩國代表의 論戰에 終始하엿다 먼저 英國代表레즐레氏는 同條項에關한 英國政府의 提案趣旨를 說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英國政府는 原則으로 戰時에 잇서서도 各國軍艦의 海峽通過의 自由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但 土耳其政府가 萬若 同國政府가 自國의 國防安全이 脅威를 밧는다고 思惟할 境遇에는 全交戰國에對하야 海峽通過를 禁止할 權利를 所有하는것이 至當하다는 旨의 英國政府의 海峽自由論主張에 對하야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斷乎 反對意見을 表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蘇聯政府는 一般的 又는 局地的保約 義務履行을 爲하야 聯盟理事會가 一國又는 他國의 軍艦의海峽通過를 許可하는以外에 모다 此等軍艦에對하야 海峽通過를 禁止하여야할것을 原則으로 主張하는바이다 또 黑海沿岸國에 對해서는 戰時平時를 不問하고 軍艦의 自由通過를 容認하여야할것이라고 海峽閉鎖論을 强調하고 不讓하매 會議는드디어 何等의結論에 達하지못하고 正午散會하고 九日午前에 再開하기로 決定하얏다 英國代表스탄레卿、佛國代表 포올·봉쿨、蘇聯代表 리트비노프、羅馬尼亞代表티투레스코의 四氏는 八日午後다시 私的會談을 行하엿다 一方 英國은 土耳其政府에 經過를 報告하고 請訓中이다 (寫眞은 리트비노프氏)

英蘇海軍交涉 俄然停頓에逢着

新倫敦條約批准도無望

【倫敦八日發同盟】英蘇兩國政府는 倫敦海軍會議終了前後부터新海軍協定締結에關하야 數次에亘하야 折衝을거듭하고잇던바 日本政府가 新倫敦條約不參加를決定하고 또 海峽條約 改訂會議에서 英蘇兩國의 意見이 正面衝突에 陷한結果 蘇聯政府의態度가 俄然硬化하야 交涉은 重大難關에 逢着하엿다고 傳한다

一、日本政府가 受諾하는것을條件으로 新倫敦條約의 質的制限條項을尊重할것

一、甲級巡洋艦의 備砲口徑을縮少할것

에 同意하엿다고 解釋되는데 甲級巡洋艦의 保有量其他에 關하야 膨大한 要求를 提示하고 如左히 主張하엿다고 보인다

一、日蘇兩國間의 現狀에 鑑하야 蘇聯政府는 極東方面의海軍力을 極秘에 附할必要가잇다 建艦備砲條項으로부터 極東艦隊를 除함을 要한다

二、日本政府가 新倫敦條約에不參加를 決定한以上 主力艦、備砲口徑十六吋를 固持한다

三、甲級巡洋艦十隻의 建造保有를 主張한다

以上 各項目中 甲級巡洋艦의隻數에 關해서는 英國政府는 絕對反對를 表明하고 倫敦條約으로 英國海軍은 十五隻 日本海軍은 十二隻을 保有하는데 끈치는 實情을 說하여 蘇聯政府는 甲級巡洋艦七隻으로 滿足하도록 說得에 努力하엿는데 蘇聯代表는 讓步의 비츨 보이지안허 이든英外相은 過般 주네브에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會見한때 直接交涉을 遂하엿스나 拒絕되어 交涉은 全혀 停頓狀態에 逢着하엿다고한다 萬一 英蘇兩國政府의 交涉이 決裂되면 英獨兩國政府間의 海軍協定을 擴充할 企圖도 絕望에 歸하고 이어서는 新倫敦條約批准도 不可能에 陷할 憂慮가잇서 英國政府는 지금 局面的打開에 腐心中이라고 傳한다 但蘇聯政府의 主張은 極히 强硬하므로 第三國 例컨대 佛國政府의 調停이 업는限 局面打開는 困難하리라고보고잇다

港灣施設讓渡 今井田總監否定

滿鐵이 北朝鮮三港의 施設無償讓渡要望意向을 갓고잇다는 報道에關하야 今井田總監은 그것은 무삼 誤解이다 滿鐵이 港灣施設을 引受하야얼마나한 利益이잇는데 鐵道라고하면 몰라도 그것이라해도 생각할수업고 總督府로서 어떠라고 말하려하지는안는다 滿鐵이그런決議를한일도업다라고 否定하엿다

米大統領選擧戰

民主?共和?

保守反動的共和黨政綱 敵黨攻擊을爲한攻擊

③ 韓普容

以上民主、共和의兩黨政綱을 比較하여볼때에 共和黨의 政綱은保守主義的이고 反動的임에 反하야 民主黨의 그것은 社會政策的이며進步的이다。現在로말하면 昔日과달러서 兩黨의 主張이 서로接近하야 大同小異하나 共和黨 政綱에는 現政府의 政策을 反對하기爲한 反對가 적지안타。

첫재로 財政政策에 잇서서 共和黨은 어대까지든지 現政府의 인프레政策에 反對하고 極端的 健全財政、健全通貨政策을 主張하엿는데 이것은現下의 米國經濟狀態로는 말하기는 쉬우나 行하기는 甚히 어려운일이다。次期

政權獲得을爲하야는 現政府를 反對하여야할 立場에 잇는 共和黨이오 現政府에 反對하려면 로ー大統領政策의 生命인 뉴딜政策을 全面的으로 攻擊하여야 하겟고 그리함에는 뉴딜政策을 運轉하여 나가는데 기름(油)이 되여잇는 인프레政策을 非難하게되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이러한 意味로 財政政策에잇서 共和黨은 健全主義를 强調하지 안흘수업는 同時에 健全財政、健全通貨政策은 이番總選擧에잇서서 가장重要한 政綱으로 볼수밧게업다。그러나 이것은 마치 共和黨의 現在의 立場이 그러한데 基因하는것이며 現下 米國社會情勢가

健全財政 또는 健全通貨政策의 切實한 必要를 느기는냐 하는點은 甚히 疑心된다。웨 그러냐하면 世界的大恐慌이 한번 襲來하자 列强은 모다 그克服策으로 인프레政策을 쓰게되엿고 또 이政策에 依하야 어느程度의 效果를 내인것이 事實이다。現在 佛蘭西以外 數個國이 健全財政政策을 固執하고 잇지마는 이로因한 國民經濟上의 打擊은 識者가 共認하는바이다。米國이 赤字豫算으로 苦痛을 當하고 잇는것이事實이나 그러타고 現下의 國內外情勢에잇서 只今곳收支均衡을 取할수잇는 極端的 健全財政政策을 斷行하라면 어느程度로 回復되여가는 景氣는 다시 一九三二年의 戰慄的 恐慌時代를 再現할것은 豫想하기 어렵지안타。收支의 빨런스를 마추려면 未曾有의 高率的 增稅를 斷行하는수박게 他道가업는때 共和黨政綱에는

收支均衡을 消極的態度에서 表示하엿다。現下狀態에잇서 事實上 不可能한일일뿐아니라 資金이잇서야 事業을할수잇게 組織된 現制度下에서 支出을 안하것다는것은 現在非常經濟時代에 處하야 政府가 景氣回復을 爲한 積極的政策을 쓰지안켓다는 말이나 다름이업다。

關稅政策에잇서서는 共和黨은 從來부터 高率關稅主義를 主張하여왓다。따라서 루ー스벨트의 所謂善隣政策에 基因한 現行互惠通商條約의 破棄를 主張하고 世界情勢에 酬應한 融通잇는 關稅制의 復活이라는 『싸운드』조흔 文句를 羅列하엿스나 結局 高率關稅政策을 斷行하야 國內產業을 保護하자는 말이다。

最近 五六個年以來 世界列國間에 關稅戰이 이가티 激化하게된 그根本原因은 勿論 여러 잇겟지마는 그

直接原因은 一九三〇年代에 所謂호ー버大統領時代의 후ー리ー·스무ー드法이라는 未曾有의 高率關稅法制定實施에 發端하엿던것이다。從來 列國間의 關稅戰이 어떠케 展開되여 現在 어떠한 狀態에잇는것은 世人周知의 事實이나 如何間 歐洲諸國에 對하야 膨大한 債權(戰債)을 갓고잇는 米國이 이 共和黨의 高率關稅政策의 結果로 戰債回收가 不可能하게 되엿슬뿐 아니라 列國의 報復關稅에 依한 對外輸出의 杜絕은 將來할 恐怖風에 拍車를 加하엿던것은 아즉도 國民大衆의 記憶에 새로울것이다。他面에 잇서서 루ー스大統領의 善隣政策에 依한 互惠通商條約의 結果는 對라틴아메리카 貿易에잇서 出超的地位를 保持하면서 貿易增進에 成功하엿슬뿐아니라

親善外交의 立場으로 보와도 多大한 收穫으로 볼수잇스니 만치 共和黨의 關稅政策은 少數產業資本家以外에는 贊成하는 者가 적을것이다。

農業政策에잇서 共和黨은 農家의 收入을 增加하야 工業品價格과의 均衡을 圖하다하엿스나 救濟인프레政策에 反對하고 健全通貨制度를 固執하면서 그實効를 擧하기는 至極히 어려울뿐이니 이問題는 亦是 現政府의政策인 AAA 其他 인프레及減稅政策以外에는 神通한 方法이업다。그리고 現政府는 AAA政策에 依하야 어느程度로 農產物價를 騰貴식혀고 따라서 어느程度의

農家收入을 增加한것이 事實이다。

勞働問題에잇서서 共和黨政綱은 企業獨占反對、婦女、兒童의 賃金及勞働時間의 制限等의 슬로ー간에 依하야 社會政策的 考慮를 表示하엿스나 勞働者의 團結權及 團體交涉權에잇서 御用組合을 對象으로 하엿다는 것은 現政府가 이미 NRA 第七條에 依하야 一般 勞働者의 團結權及 團體交涉權을 認定하엿던 事實에 比추어 保守的 色彩를 濃厚히 보엿고 失業問題에잇서서는 『失業救濟는 州政府가할것이오 聯邦政府는 다만 그補助金만을 交附하라』는 消極的 表現을 하엿는대 支出大削減、救濟인프레에 反對하는 共和黨이니만치

失業救濟를 問題視하지 안흘것이 事實이다。

이와가티 共和黨의 政綱을 檢討할때에 이것이얼마나 保守的이오 反動的임을 알수잇거니와 昔日에 保守的地方分權을 力說하던 民主黨과 進步的 中央集權을 主張하던 共和黨이 現在에와서 그主張을 轉倒한것은 滋味잇는 對照이다。(完)

米國民『코끼리 공화(共和黨)가 민주(民主黨)의 소리를 내고 나귀가 코끼리 소리를하니 대체 엇지된 셈인가?』

八面鋒

◇ 다다넬스海峽을 다다두자 다다툴수업다하야 英國과 蘇聯이相持。

◇ 닷든지 열든지 土耳其와希臘이마음대로하면 고만일것을、그러치못한것이禍根。

◇ 海峽通過가自由로되면 一朝有事時에 蘇艦隊가 地中海를맛고 佛艦隊가 北海로올것이라는것이 獨逸側의걱정。

◇ 中間에끼인英國이 그러치안타고 알들을하는양도 우습거니와 이러다가는 公海通艦制限條約가튼것이 생기지아니할가。

◇ 英國의權利에關한 스에즈運河封鎖도 空論에돌아갓거든、지금에 다海峽問題도 우수운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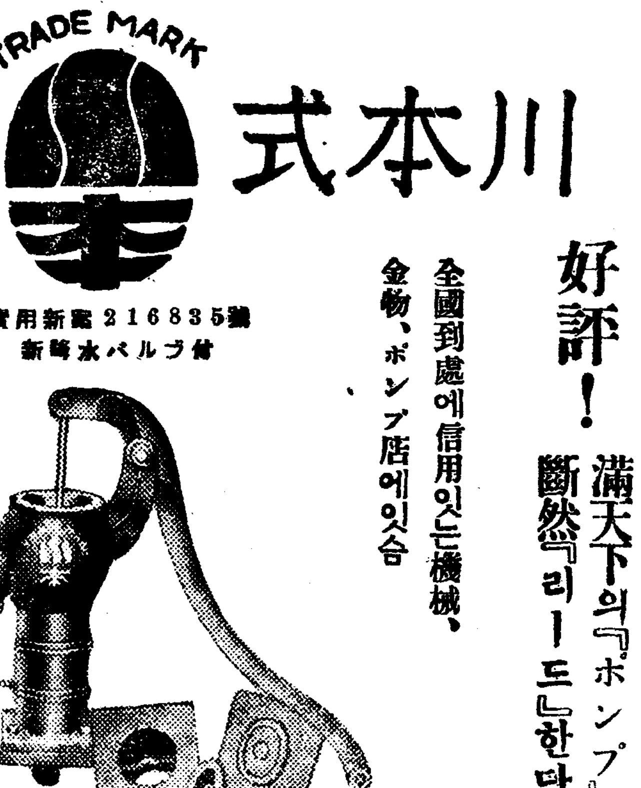
◇ 단지히自由市問題로 中歐에風雲이 일어기前까지 屋下私議나 식혀하소。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實用新案216835號 新案特許パルブ付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 斷然『리ー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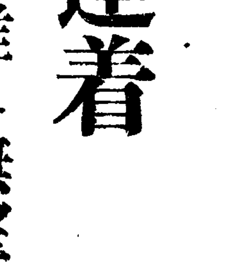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謹告! 今番特許局의査定에依하야(實用新案第二一六八三五號) 以來從來製品에「川本式」이라는字句도商標로公告되엿고 從來製作의 川 印ポンプ는製作을廢止하엿슴으로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印外에는업읍니다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川本製作所 振替名古屋二五七七番・電話中局四四五五番 受信略號ナゴヤポンプカハモト

特約店 岡谷銅物部



小箱型 金0.15 // 0.30 // 0.50
小ポケット型 金0.60 // 0.80 // 1.00
小コダック型 金1.00 // 1.30 // 1.50
ベスト角蛇腹 金1.70 // 2.80 // 4.00 // 6.00
ベストコダック型 金2.50 // 3.50 // 6.00 // 7.50
プリンス號 大名刺 金24.00 小名刺(A)// 18.00 同(B)// 10.00

特約店 一邑一店에限함

●가다로그要二錢 ●仕入은直接製造元에서 商號는店名스템프捺印後申込하시라

製造元 東京カメラ製造所 名古屋市中區大須門前町五丁目 振替名古屋二五〇〇七番

代理店 安東商會 慶南晉州榮町一四番地(電話三二一七番)

ノーブルミシン

大特賣 一臺 九圓五十錢 一臺의小包送料 一圓〇五錢 (說明書進呈)

素人이라도短期練習으로洋服이나朝鮮衣服이라도簡單하게裁縫되는流行型獨逸式國產ノーブルミシン입니다 單式縫입으로解剖할제도 絲止도될뿐더러 손쉽게풀니며、洗濯縫、밋붓치、又는練習用等에 가장取扱便利하며、安價임으로어떤家庭에서나必히一臺는必要합니다。

寸法 高八寸五分 奧行一尺〇五分 間口六寸五分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〇

正廟御製 待闡錄

辛壬事件以來宮中府中의大暗流 李朝中世紀以來黨人政治의大罪惡 端宗哀史以上의大悲劇史

故布衣先生 朴夏源原著 白貞 李源永編修

發行所 京城府新設町二二六番地 白貞舍 振替京城二三五三番

東洋劇場

七月六日부터 京城名物 五色會公演

1 사랑의꼿다발
2 曲藝땐스
3 봐라에레아가씨祭 外九景
4 自轉車曲藝
5 舞踊劇 大名
6 豪華舞踊 오늘도明郞히 外七景

其他獨唱、合唱、奇術曲藝、레뷰ー、舞踊

入場料 階上大人七十錢小人五十錢 階下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西大門町 電光3三三番

警察官을大增員
明年에一千五百名以上
都市膨脹과人口의激增으로
警務局에서明年度新規豫算으로要求

경무국의 명년도예산편성에 대하야는 방금경무과에서 각과의 것을 모흐고잇는데 신규요구중 중요한것은 경관의 대증원요구 이라한다 경관의증원요구는 각도에서 매년 상당히 다수를요구하여오나 금년도에도 불과백여명의 증원밖게 승인되지못하엿섯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긔보한바와가티 수비대철퇴후의국경경비의 확충을하기위한 경관증원이 팔백명의 다수에달할뿐 아니라 경성부의 구역확장에따라 대경성의치안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야경긔도에서는 약이백명의 경관을 증원하야 경비긔관의충실을 도모하고저 계획중이라한다 또평양(平壤)과 부산(釜山)에 경찰서를 각하나식 증설할 것과외사경찰확충계획에의한 경관의 증원기타 각도의 도시 팽창과 인구증가에 반한 경관의 자연증가의 필요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결국 경무국에서 요구할 경관증원 요구수는 실로일천오백명을 초과하게 될모양이라한다 따라서 명년에는국경경비의 확충관게도잇서 상당한다수경관의 증원이 승인될것으로보인다

천엽과肝의膾먹고
九名이中毒騷動
八日夕、龍岡郡海雲面溫井里에
醫療機關업서生命危篤

【平壤支局電話】룡강군해운면온정리(龍岡郡海雲面溫井里)에서소고기를 판매하는 강원일(姜元一)의집에서 가튼동리에사는 림동빈(林東彬)(三一)은 간(肝)과천엽등속을 사다가 육회를 맨들어노코 소주를사다가 준비한후 가튼동리에사는 친구여덜명을청하야 지난팔일오후부터 한잔록통히 먹엇는데 동일오후여섯시경에 술먹든사람들이 갑작이토사와 설사를하고 배와골치가압허서 야단법석이 낫섯다 그러나 원체농촌의일임으로 의사는 물론이오 구급하는 약도업서서 주인림동빈까지 아홉사람의 생명이매우위독한상태라한다 그런데 이는 아마 소 내장이 썩은것이여서 중독인듯하다하나 확실한원인도 아즉 알지못하고 온정리일대에서는 갑작이 떠들석하다하다

全羅道燒酒統制에
業者側反對表明
二三年延期를希望

【全州】전라남북량도에서 년일만오천여석의 양조 수량을가지고잇는 전라도 소주(燒酒)를금번광주세무감독국에서는 전라남북량도의 『소주양조』를 통일시기고저 수일전에 삼산간세과장(森山間稅課長)이전북리리(裡里)에 출장하야 각양조업자를 모아노코 통일에대한 의사를 의한바 잇섯다는데 업자측에서는 말하기를 근래도내소주양조업자들은 막대한 자금을너허대규모로 생산에로력 하는중인데 만일차제에 통제를 한다면개인의게 불소한손해가 잇스니아무려한 관게가잇슬지라도 이삼년안에는 정식합동을 허락할수업다는뜻을 말하고 산회하엿다는데 감독국의 합동제창에대하야 금후업자측에서는 어느정도까지의 희망을 요케될는지자못주목되는바 크다고하다

안해德에살든남편
창피當코鐵拳制裁

안해가버려서 먹고사는 사나히의최후는 폭군(暴君)『네로』이라

시내 봉래정(蓬萊町)일정목 일백삼십이번지 권영소(權寧沼)(三?)는 팔일폭행(暴行)혐의로 본정서에 인치당하엿다는데 그는 지금부터 칠년전에 유완녀(俞完女)(二三)와 내연관계로 동거생활을계속하여오든바 생활의 길을 차지못하고 유완녀의 매음생활로버려오든것을 겨우생명을 부지하여오든만큼 그들사이는 일상풍파가 떠러지지안코 녀자에게 어더먹고사는 남자의 최후의 발악은 폭력이라 그는 때때로 폭군노릇을하다가 지난팔일에는 아츰부터 사소한 언쟁끄테 다시싸홈이시작되여 폭력에 유완녀는 견치일개월가량의 치료를 요할 상처를 밧고 분한마음으로 본정서에 그남편을 고소하여 그와가티 인치당하게 되엿것이라한다

다섯가지罪目에
前後犯行廿一件
橫領金額만도實로一千餘圓
瀆職警官、不日公判에

【光州】전남라주경찰서(羅州署)구역인 영산포주재소(榮山浦駐在所)의사법계급고등게 근무인 순사부장 박근용(朴根用)(三一)과 동형사인 김상백(金相伯)(三七)등 오명에대하야 공갈사기횡령등다섯가지의 죄명으로 작년구월초순에 검거하야 취조를 마치고 이여광주검사국에 일건서류와가티송치하엿든바 예심에 회부되야좌좌목(佐佐木)예심판사에게취조를마치고 륙월이십구일부로종결이되야 공판에 회부되얏다한다 그리하여 근일중에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공판을 개정할터이라하며 그들의 죄장을볼진대 무죄한백성을 공갈도는순허가를 어더준다는등사회를 시켜준다는등 별별수단을 다하야 최고 이백오십원으로부터 최하 이십원까지의 건수가 무려이십일건이라하며 금액일천이십여원에 달한다는데 전남에 잇서서는 처음으로보는 사건이만큼 떡이나 그의 진전을 일반은 주목하다하며 그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本籍 務安郡二老面上里九四 住所 羅州郡榮山面榮山里一一 前巡査部長 朴根用(三八)

本籍 慶北金泉郡金泉邑南山町 住所 羅州郡羅州邑羅城町七二 前刑事 金相伯(三七)

住所 羅州郡榮山面二倉里一二〇 馬覺買仲介業 金玉鉉(三六)

住所 羅州郡榮山面二倉里三九 農業 文千文(三七)

住所 羅州郡榮山面二倉里一〇〇 雜貨行商 文泰植(三三)

住所 羅州郡榮山面榮山里 旅人宿 金今心(二?)

平壤高女寄宿舍에
赤痢患者또發生
患者는隔離코大消毒

【平壤】평양고등녀학교(平高女)긔숙사에는 『지프테리아』가 일시창궐하여 대소동을 일으킨사실이 잇섯는데 오일에는 적리(赤痢)환자가 발생하여 보생의원(普生醫院)에 격리하는일방긔숙사전부를 소독하는등 배소동을 안출하고잇다한다

鐵道自殺하기에는
넘우도어린나히
十六歲"에레베타·껄"自殺

팔일오후 열한시칠분 영등포역(永登浦驛)을떠나 목포(木浦)로 가는제삼백이호렬차가 영등포맥주회사(麥酒會社)압 "건너가는 길"을 지나려 할지음에 묘령의녀성이 돌진하는 렬차로 뛰여드러 무참한 자살을 한사실이잇다 그는 시내청진동(淸進洞)이백이십륙번지 정익수(鄭益洙)의둘재딸 은자(銀子)(一七)로 작년상월일 시내주교(舟橋)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곳 삼중정(三中井)백화점 "에레베-타·껄"로 취직 되여 이래 모범 점원으로 근무중 전긔와 가튼비참한 최후를마첫다는데 그의『핸드빽』속에는 유서가 세통이나 잇섯다한다 자살한 원인은아즉 불명하나 나어린 시대의감상(感傷)에 무든『속크』를 바든결과가 아닌가하는데 일설에는 련애관계라고도한다

天然町에縊死屍

시내 천연정(天然町)뒷산의 소나무에목을 매여 죽은 시체하나가 달려잇는것을 구일 아츰일곱시반쯤에 그곳을 통행하든 사람이 발견하고 곳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엿스므로 경관이 가서 조사해본결과 그신분은알 수업스며 죽은원인은 세상을비관한탓인듯하다한다

道知事葬儀式에
參列者日射病騷動의續報

中等生徒四十四名
初等兒童四十六名
一般參席者도廿名이나卒倒
暴炎下에長時間整列이原因

【光州】긔보=전라남도 지사 고 근등상상(故近藤常尚)(四七)씨의장의식은지난오일 오후네시부터광주소학교정(光州小學校庭)에서 도내각지 공직자 [illegible] 론멀리경성동경(東京)등지에서까지 [illegible] 이 잇섯스며 광주부내 남녀중등급 초등학교생도 참열하에 약두시간의 장시간의 식사를진행중 너머나 일긔가 더워승인지 참석한 남녀학생의 졸도한사람이 일백여명의 다수에달하얏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졸도당시에는 떡이나 위중한사람도잇섯스나 의사의 응급수당도 잇섯스며 그후경과가 양호하야 각학교생도들은 별로이상이 업섯는데 졸도한생도들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의 비교를보면 광주중학교생도십팔명의 졸도생을 필두로 중등학교전졸도생도사십사명이며 초등학교 졸도생도사십륙명에 일반참렬자가 이십여명의졸도자가 잇섯는데 그중에서도 녀자가 약팔할이라하며 각교의 교의(校醫)의말을드르면 다음과갓다한다

學校當局은숨기고
校醫들은是認!
卒倒者의經過는良好

금번졸도사건에대하야 기자는 각학교당국자를방문하니 각기 자긔학생은 졸도한사람이그리 만치안타하며 확실한 수자는 대개말치안하는데감독관청에보고수자는 역시졸도한학생이백여명이므로 각학교 교의를방문한즉 이구동성으로말하기를 그와가티 졸도한사람이 만흔것들은 하절이관게도 잇거니와 그중에서도 녀자와초등학교생도가만흔것은 발육긔에 잇는 녀학생의신경이 약하며 또한여러숙한장의식장이므로 정신이긴장한관계와 초등학생은 말할것도업스며 약한몸이므로 그와가티되엿것이요 다른근거잇는병이아니여서 그다지중태에 이르지는안코 생도들은 대개 무사한모양입니다운운

正統朝鮮舞踊
三日間發表大會

조선일일신문사와 조선상공신문사주최로 오는 십일일 십이일 십삼일 사흘동안 매일 오후일곱시반부터 시내태평통 경성부민관에서 정통조선무용발표대회를 열터이라한다

空中撮影制限

조선의 국방적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여 중요지대 대도시 중요건물등의 공중사진 제한에대하야는 필요 군사령부에서 군부 총독부 각관계관이 협의한결과 드듸여 일본내지에 압서서 실시하게되엿다 가까운 장래에국가총동원 비밀보호법의 시행을 예상하고 조선에서는 지금 즉시로 부령(府令)도령(道令)등에 의한 제한을 설정하는 번잡을 피하야 현행경찰권의 범위안에서 공중사진의 제한을 행하는 편법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야 금명일간에 이에관하야 경무국에서발표하야 일반의 주의를촉진할예정인바 공중사진을 전연금지하는것이 아니라 우선공중촬영을할때에는 일정한 허가를엇는정도에 끄치는 모양이다

"間共"十六名死刑囚의
再審請求를遂棄却
九日、覆審法院에서決定!

경성지방법원에서나 경성복심법원에서 두번 다 사형의 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엿다가 역시 기각판결을받은 간도공산당사건관계자 십팔명중 박동필(朴東弼)김동필(金東弼)두명을 제하고 주현갑(周現甲)등 열여섯명은 얼마전에 경성복심법원에 사형판결은 부당하다는 재심청구(再審請求)를 하엿든바 구일에 그법원형사부 적(荻)판사는 재심 청구의 리유가 업다하야 전부 기각의 결정을 하여버렷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오직서대문형무소의 교수대에서 최후의 운명을 지울수밧게 업게되엿다한다

"丙子厄年"을팔면서
엉터리祈禱詐欺
◇市內에橫行든두女子被捉

병자(丙子)년을팔며 허무맹랑한 말을 맨들어서 우매한부녀에게 금품을 사긔해먹는 녀자긔도사들이 팔일시내 종로서 사법계에 붓들렷다 그들은 전라북도 임실(任實)에서 상경하야 시내를 떠돌아다니는 리순자(李順子)(二七)와 김순예(金順禮)(三七)의 두여자로 팔일오전 열한시경에 시내인사정(仁寺町)이백사십오번지 리현긔(李鉉基)의집을 차자가서 마춤둘재아들종두(鍾斗)(三)를안고잇는것을 보고 리현긔의 안해 송정숙(宋貞淑)(三〇)에게 그아들이 금년이액년이라 죽을운수이니 금품을내고 긔도를하면면할수잇다고하야 엉터리 긔도를하고 치마한벌과 약간의 돈을 사취해갓는데 이사실을 탐지한 종로서원이 인사정 금성여관에 잠복하고잇는그들을체포한것이다

天氣予報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흐리며 明日도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三〇度六
同 最低 二〇度四
今朝最低 二〇度二
今日正午 一九度九

漢江情死屍는
十七歲少年少女
少女편의他處婚談을悲觀
可驚할末世的輕風

긔보=여드렛날 오후여섯시에 로량진한강신사(鷺梁津漢江神社)밋 강물에떠오른 젊은남녀의 정사시체에 대하야는 그동안 소관 룡산서(龍山署)에서 그신원을극력조사중이던바 구일드듸여 그들은 시내신당정(新堂町)김성모(金聖謨)(一七)이란소년과 한동내 사는 김응순(金應順)(一七)처녀로 판명되엿스며 그들은 동대문밧 어떤고무공장에 가튼직공으로단이면서 순결한 첫사랑에 잠겨 잇든중·지난오월경에 전긔김응순의 아버지가 다른곳으로식집 보내기로 결정하고그들의사랑을 들어주지못하게되다는 선언을듯자 어린 두소년소녀들은 극도로비관한끄테 밤 열한시경에 집을 나가서 그와가티 정사를하고만 것인데 나희 열일곱된 아이들로써 이와가튼 끔찍한일을 한것은 근자에 듯기드문일이라고 한다

市區劃正에着手
永登浦、淸凉里、麻浦의
모다工業地帶로서京城府當局이代行
大地主의投機盛行이念慮

행정구역을 종래의 사배로확장하야 대경성이되기는 금년봄이엇스나 실재로 대경성의 규모를형성하기까지의 제일보는 명년부터로 사업은 전반이 토목에관한것이다 첫재 대경성건설사업의목표는 근년급격히 발전하고잇는 신편입구에대한 시설이 주요한것인데 우선명년도에 착수할것은 도로망의게획보다는 시구획정(市區劃正)을 철착수로 하게될것으로 그목표는 영등포(永登浦)와청량리(淸凉里)와마포(麻浦)의 삼개소를 작금에 그 예비조사를 하고잇다 전기삼개소의 구역범위가이직명확치는안흔모양이나대개 그범위도상당히 넓게 잡게될모양이다 즉전긔삼개소는 대경성의 배양지로 대개공장지대로서 급격한 발전을 불코업으로 청량리방면은 중앙선(中央線)과 경춘선(京春線)의 종점정거장도 설치될모양으로더욱 시급히 시구획정이 필요한 모양이고 영등포도 역시공장지대로 대단한 발전을 보고잇고 마포방면도 거이 시가지를 형성하고잇는터이어서 금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미리 시가지의 구획을 만들어두어야 된다는것이다 그실시에는 설계비와 기타지도의관한 비용은 부담국에서 지출하고 그여의 일반 비용은 일반지주들이보담하여야 되는것인데 당초는 지주들로하여금 구획정리조합을 조직케하야 그조합에서 공사를하게될것이나 편의상부에서 대행케될모양인데 경성부에서는 비용으로 지주들이 부담하여야할것은 매평에이원 평균으로보고잇다 이가리하야 시구획정을하게된다면 소지주들은 비용때문에 땅을팔지안흘수 업시될모양으로 결국은 시구획정의 결과는대지주들의토지투기가성행할모양이다

運動競技

伯林올림픽委員會
總會議題
開催地決定은第三項

【伯林八日同盟特派員發】次回올림픽開催地를 決定할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는 來二十九日부터三日間伯林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데 第一日은 午後四時부터 伯林大學第一會議室에서 開會式만을擧行하고 三十日과 三十一日의兩日間에 열리는會議에서 午前九時부터 會議를열고 晝食時間에 休憩하엿다가 다시 午後二時부터 再開할豫定인데 次回大會開催地決定은 議題의 第三項에잇슴으로 比較的速히着手할터인데 東京 헬싱키 런던의 各候補地를 中心으로 決定까지에는相當論議를 行할것으로 觀測되며 會議第一日議題는 第十까지 다 進行할모양이나 時間이許하면 繼續議定할모양이다 決定된議題는 다음과갓다

一、一九四〇年大會開催地決定
二、新役員選擧
三、米國委員 리·장크·슨問題
四、新委員承認
五、藝術新種目
六、A射擊、B米國加奈陀의스케수라켓新加入
七、無行登山에 對한 表彰件
八、아마튜어問題討議
九、佛蘭西의 크리레엣츠 提案(五個年以上 留任치안는者의出場禁止、이는憲法改正의重大提案)
十、테엘드 헬드爾氏의 提案 年齡을 制限하야 最低年限을 定할것
十一、一九三七年次彰者決定(程度는秘密)
十二、스포ー츠 教育
十三、A스키ー聯盟의件 B外이급聯盟의件 C愛蘭의抗議 D東洋體育會議 E奧國代表로부터의 申入研究 F新聞紙文字使用制限、G從來의 優勝者優待法、H大會收入處分、I빼스켓뽈提案 J스트라ー제에
十四、次回總會期決定
十五、無線
十六、雜錄
十七、豫算

東京留學生
庭球來訪日程
來十一日東京發

在東京留學生으로 組織된白友庭球俱樂部軍이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鄕土訪問을 計劃中이라함은 既報한바어니와 一行은萬般準備를 마치고來十一日東京發하야各地에轉戰할터이라는바 日程과陣容은다음과갓다

▲七月十三日 對全大邱軍
▲同 十四日 對全水原軍
▲同 十五日 對普成專門
▲同 十七日 對延禧專門
▲同 二十日 對黃海靑年

◆…陣容 引率者金善周、마네저 柳海鵬 主將金珍泰 選手李圭峰 崔炳宙 金善周 金沃周 姜五전 李先徵 崔瀛洙 柳海鵬 金珍泰 鄭錦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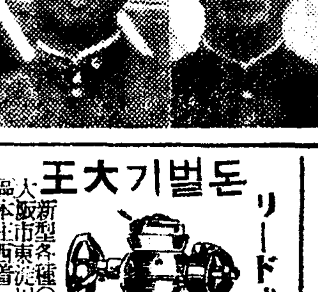
朝滿陸上對抗
朝鮮豫選記錄會

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朝鮮、滿洲對抗 朝鮮豫選記錄會는 八月十六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諸般規定은다음과갓다

▲申込規定=一人三種目以內
▲申込期日=八月十日까지 京城府光化門通遞信局保險業務課內의 堤登司馬氏에게 申込할것
▲參加資格=今年度 登記者로서 朝鮮內居住者에限함
▲地方參加者=地方에서의 參加者는 經費自擔함
▲競技種目=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高障碍、中障碍、投圓盤、投砲丸、投槍、投鐵槌、走幅跳、走高跳、三段跳

朴、周兩卓球選手
京都에遠征

朝鮮學生卓球界의 名選手 朴盛榮(高商) 周澤洪(普專)兩君은 來十四、十五兩日間 京都에서 열리는 東西學生對抗卓球(個人及團體)戰에 出場코저 明十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할터이라한다 兩君은 十八日京都에서 열리는 全日本學生卓球大會와 十九日 神戶에서 열리는 全日本高商卓球大會에도 出戰할터이라한다



(寫眞은 本社來訪한 朴(右)、周(左)兩選手)

運動界人事

▲金寶羽君(法政大學陸上競技部主將) 夏期休暇로 歸省人事次 九日本社來訪

農林省御指定 特許 中島式自動製粉機 三府四十二ケ縣指定 獎勵金付 製綿進呈 農林省の御指定になる 中島式による製粉業の有利 小資本にて 利益の多い製粉業 中島製粉機朝鮮販賣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 電話長一五九四番

謹謝火災慰問 七日夜半 弊工場火災에際하야 諸賢의 多忙하신 慰問을 忝承하와 感激하온바 마지아니하옵는바 書面謝禮치못하옵고 爲先紙上으로 謝禮를表하나이다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七九 泉商會 電話光化門五七一番 營業은 從前대로 繼續하오니 倍前 愛護하여주시옵소서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三一三番 七月七日부터大公開 料金은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野性의絕叫 主演… 現代劇 自動車で拾った戀 監督…太田辰三氏 主演…島田文郞氏 探偵劇 國際盜賊團

雨衣都散賣 우장옷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습니다―가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鍵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數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兒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電話本②二〇一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利益만은副業으로男女小兒자遠近自宅에서 無休、年中無 될수잇는職業、藥書로申込하라。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코흘니개와 코맥히는 治療方秘訣 申込次第無料로送呈함 東京市芝區佐久間町二ノ二 申込所 確報堂藥品部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되는 製菓法傳授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一九八番)

朝報案內 藥劑 藥劑師免許잇는분으로 採用하겟사오니至急來談하시옵소서 京城大學病院前 東邦製藥會社

印章紛失 本人이七月二日에玉石四角型印章을紛失하엿삽기護告하오니諸覽은照完하시옵 京城府鍾路三丁目二五 李輔淵

恩給 長期貸付 特色 京城府長橋町一六〇 鄭商會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設備內容共二東洋第一 參觀歡迎 入學隨意 生徒募集 免許證據得者에對責任敎授 就職無料確實紹介 學則申込次第送呈(郵券不要) 所長 元京畿道運轉者試驗主任警部 溝見良 經營 京城府若草町大通 橋本フォード販賣店 電話②五一二五三番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振替略號ヘイセ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呼吸器疾患의 豫防과治療에는 네오톤토닉 柳韓洋行

農林省副業課獎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販路는世界的으로雄大하야前途洋洋한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九十番地

商標登錄 銀河水 고무신 商標登錄 世界 運動靴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電話光③一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健康第一 (건강제일)

보음보양 가이자ㅡ
젊어지는약 가이자ㅡ를 쓰시오

健康美(건강미)! 人間美(인간미)! 참된행복!

보음보양 젊어지는약은 가이자ㅡ가 제일이오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 수명이잇스니 백살까지몸이튼튼하고 원기가왕성하여야 사회에서하고싶흔일을할것이오 인생의 향락도잇슬것이다 그럼으로 몸이약하고양기가주러가는것을 다시회복하도록제일조흔보약을써야한다 가이자ㅡ(KAIZAR)는동서양에서제일유명한신발명한약제의정분으로된 보음보양젊어지는약인대원기와양기를 근본적으로 소생식히여점점왕성하게하는명약이다。화류병을알엇던지 과○과로하고또선천후 천적으로 몸이약하야 양기가부족하고 원기업고신경쇠약증이잇는분은 속히가이자ㅡ를쓰시오、양기가회복되고더욱더욱왕성하야 인생의 향락을마음대로할수잇다신외무물이오니이러한고명한약을 한제쓰시와 건강제일의행복을누리십시오

이런분은 쓰시오

양기부족 원기부족 음위、속히되는분
◎감증 쾌감업는분 신경쇠약 빈혈증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좃습니다
(약가) 중증엔 한제에 십원 경증엔 오원
지방송료 선금십오원 대금인환 삼십오전 약은 환약이오 정분으로만 된약입니다

어더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인생 고해(苦海)라고 고생만하고 산다 장가마(轎)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 불행이잇다 돈이업서서하고싶흔일못하여 돈은 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은업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만으면서로 번가러가면서 병을알는다든지 일일히들어서말할수업스나 제일고롭스러운것은 몸에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몸에병이잇고는 영웅 열사도못견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 돈이만어도 쓸대업고 지위(地位)가놉허도 다ㅣ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밋헤비접만드러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더구나 몸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당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드러도 머리만좀아퍼도견듸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보면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ㅣ죽는병이라한다 그럼대 우리는 그런줄을모르고 의학과위생(衛生)의지식이업기때문에 항상병을알코 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좀더 잘살고 행복스러운 생활을할라면 제일병에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 걸여도 그병이 점점중하야저서 죽게까지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 써야하겟다 그러면어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ㅣ아는 서울신성당약이무슨병에든지 제일좃타한다 이것은 입달닌사람이면 다ㅣ말하거와니 더욱 각 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잘 증명한다 날마다나다십히하는 광고를보드라도 이것이 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 호미로막을것을 등한히하면가래로도못막게되니 이글보시면 곳쓰시오 행복과 광명은 서울신성당으로부터! 바드시오

신성당칠대명약외에 무슨약이던지 업는것이업사오니 다소를물론하고 먼저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정 큰회벽돌집 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십시오 진체구좌는 경성四九五○번입니다。 주문하시면 당일로곳발송하야드립니다。

가이자ㅡ의효능

보혈 강장제 (補血强壯劑)
빈혈증 (貧血症)
신경쇠약 (神經衰弱)
로쇠 (老衰)
근기상실 (根氣喪失)
영양불량 (榮養不足)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벽옥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代表電話光化門 三三四番 振替京城 四九五○番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增募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 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흔 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시기를바랍니다

特約店以外(특약점이외)에는 절대로 화리나특전이업습니다

時加日增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黃海道海州 宋淳炯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陽堂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咸南端川郡汝海津 鄭仙藥房
咸南永興郡宣興面 嚴龍得
咸北漁大津 閔泳濤
慶南鎭浦 朴基煥
咸南咸興府本町通 三省堂藥房
咸北惠山線水驛前 永生堂藥房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同 始興郡新東面平昶里 李鎭英
同 永登浦 裵振磐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瓚
同 開城府都橋市 ハヤシ藥房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鉉
同 江華郡良道面道場里 韓仁奎
同 漣川郡南面華山里 李殷傑
同 水原邑 金德根藥房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玎均
同 洪城邑豐農園 李康世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同 公州邑錦町 權明順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忠北淸州郡米院面岐岩里一○九 華信藥房
同 潭陽郡大田面谷城里 丁利燮
同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同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賣藥部
全北金堤邑內 趙東泰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延鎬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標
同 錦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鑽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鋪
同 咸安郡安義面錦川里 崔周錫
同 河東邑 徐生堂藥房
同 晉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同 晉州邑明治町 金元春
同 晉州邑日出町一○九 第一藥鋪
同 同 六二 金成藥房
同 同 大黑洋藥堂
同 同 榮町 ツバメ藥房
同 馬山府俵町 天和藥房 李鉉秀
同 馬山府石町 五行堂藥房
同 釜山府寶水町義崇號 韓明東
同 蔚山郡青良面開谷里一六 孫秀鎔
同 居昌邑 章榮振
同 晉州郡凡西面斗山里 朴慶龍
同 [illegible]驛前 松山堂藥房
同 南海 華生堂
同 泗川郡西浦面舊坪里 金鎬玉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一○六 朴基憲
同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房
同 尙州郡邑外畓里 權聖八
同 善山邑本町 金亨燮
同 盈德郡丑山面景汀里 金春淑
同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同 佛國寺驛前 金觀淸
同 大邱府達城町三○ 樊入岩商店
同 淸道郡華陽面松金洞 鄭曉酒
江原道金化邑 金化德藥房
同 江陵邑內 黃鳳源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四 金化奎
同 金城驛前 文店
同 原州郡富論面興湖里 馬在根
同 平康郡福溪驛前 丸實商會
同 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同 洪川郡化村面君發里 申世均
黃海道載寧邑內 金宗善
同 [illegible]井驛前 金鷄商店
同 鳳山郡沙在面赤城里借岱 李淳芳
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孔觀五
同 信川郡龍門面福隅里 權五契
同 延白郡彰德里 吳弼福
同 海州邑內北幸町三六 林官浩
同 安岳邑 朴俊鎬
同 載寧郡 朴瑩影
同 南川驛前 金容大
同 沙里院本町通 秦和堂藥房
平南平壤大和町通 石判赤門堂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錦容
同 肅川驛前 全應朝
同 龍岡郡海雲面城峴邑 鄭鳳益
同 龍井里 李亨植
同 安州郡立石市活信藥房 李觀龍
同 平壤府南町四一柳原藥房 洪夢信
同 平壤府橋口町四○ 尹炳寬
平北碧潼邑內 金泓官
同 滿浦線香山驛前 朴採琫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同 宣川邑內川北洞 福山婦人商會
同 鐵山邑內 安東商店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同 宣川郡川南洞 回春藥房
同 新義州府彌勒洞新義州 廣世藥房
同 車輦館驛前 東亞藥房
同 定州郡大田雲鶴洞 胤和藥房
同 鐵山邑內 安東商店
同 雲山郡北鎭市 天齡堂
同 雲田驛前 春山藥房
同 新義州府眞砂町 救世藥房
咸南新興邑內 錫安藥房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金允吉
同 豐山邑內市通義信商店 洪淳義
同 長津郡郡內面上梅山里 姜基順
同 北靑郡下車日面萬景市 姜完洙
同 新高山驛前 普惠藥房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同 城津港旭町 普信堂藥房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同 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同 城津郡鶴南面禮洞 李炳秀
同 朱乙驛前 北一堂藥房
同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咸南北靑邑壽世局 金裕屹
同 北靑驛前 五六藥房
同 咸興府本町 三省堂藥房
同 元山府南村洞二四 金元輔藥房
同 元山府廣石洞一 東明堂藥房
同 元山府 岩卯商店
同 甲山郡惠山鎭本町惠山堂藥房 李昌旭
同 興南驛前九龍里 日天堂藥房
咸北吉州邑內 壽星堂藥
江原道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咸北雄基上本町 十字堂藥房
同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同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信生堂藥房
同 雄基邑本町四○三 五信堂藥房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二 益壽堂藥房
同 羅南邑生駒町五七 鮮圖堂藥局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萬壽堂藥房
名古屋市南區中山町一ノ一八 平和堂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片岡古吉
安東縣市場通九丁目三番地第四號ノ四 吳昌祚

動物愛護說話 ⑥

색기따라죽은 어미원숭이 (一)

崔秉和

그집에는 늙은내외와 원숭이 두마리가 살엇습니다。늙은내외에게는 자식이 업스므로 원숭이모자(母子)를 자식가티 길럿는데 원숭이모자도 주인을 퍽 딸케되여서 주인내외가 집에업슬때에도 작란을 하지안코 집을잘직히고 잇섯습니다。

이산골에는 오래동안 킈두루는 단비가 오시여서 모내기에 몹시밧버습니다。

『여보 우리도 모를 내러갑시다。』

『난오늘 빨래를 할라고 양잿물을풀가하는데。』

『그럼내 머저나갈테니 양잿물은독에 담그고오구료。』

『그래요。』

아츰 세수할적에 이집내외는 이런한이야기를 하얏습니다。

아츰밥을 다먹은 하라버지는 부리나케 나가면서

『얼든나오。』

『그래요。』

할머니 뒤에서 젯물을풀면서 대답하엿습니다。

집안사람이 박게나갈때는 어미원숭이는밧듯이 대문밧까지쪼차나가서그가는곳을 바라보는것이 버릇이되여잇고 색기도 언제든지어미를 따라나와잇습니다。

오늘도 하라버지가 박게나갈때 어미원숭이는 대문간까지따라왓습니다。색기원숭이는 쫄 따라나오다가 할머니겨테 웅득섯습니다。독속에서 부글부글끌는잿물소리를 드른까닭이엿습니다。

색기원숭이는 잘찻고 그소리를 듯고잇섯습니다。

어미원숭이는 대문간에 기대안저서 하라버지가는쪽을 바라보고잇섯습니다。

『이만하면 되겟지』할머니는 혼자중얼거리면서 젓든방맹이를내동댕이치드니 수건을쓰고 쟁이와호미를가지고

『애! 갓다오마。집잘보고 잇거라』사람에게나 말하듯이 이러케말하드니 밧그로 나가버렷습니다。

원숭이모자는 역시 대문까지 나와서 할머니가는쪽을 한참바라보고잇섯습니다。

뜰에는 비온뒤에 해비치 쨍이 내리비첫습니다。바람한점 업고 소리하나 들리지안헛습니다。기픈산골의여름은 몹시도 조용하야 자기를 이저버릴듯한꿈에 둘러싸여잇섯습니다。

그 조용한가운데 잿물은 아즉도 잘고대와가튼 가느다란소리를 내엿습니다。그라고 색기원숭이는 그여페 눈을말똥말똥 뜨고 귀를 기우리고 잇섯습니다。

어미원숭이는 마루에가안저서 김이무럭무럭나는 잿물독을 바라보고잇드니 어느듯 그눈이 점점 가느러지면서 나중에는 아조 감어버리드니 고개마저 숙어버렷습니다。쫑은히 내리 조이는 아츰해에 고만 조름이 온것이엿습니다。

색기원숭이는 잿물독가가히가서 귀를밧삭대고 열심히듯고잇섯습니다。그독속에서 나는소리는 ——무얼가? 드르면 드를사록 색기원숭이는몹시궁금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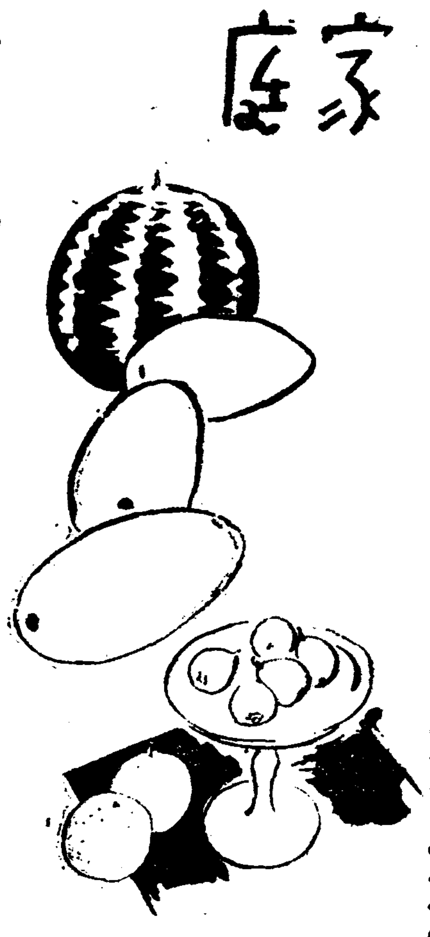
물독을 잠간동안 치여다본 색기원숭이는 더 참을수가업는지 잿물독위로 올나가기 시작하엿습니다。

뜰에비친 길다란거림자에 조고만게 움직이고잇는것은 양잿물독에올라간 색기원숭이가 독속을 드려다보는것이엿습니다。

꺼렁! 꺼렁!

요란한소리와 부르지지는소리가 귀에들림으로 어미원숭이의 잠은 깜작 깨엿습니다。

家庭



빙수의래력을 드러보소!

처음은一 코무든돈에팔려 『한곱보에일전一식』

기왕에갓생겨서한창들날릴때 왕후장상만자셧소만

녀름에 어름을 먹는다는것은 지금와서 평범한이야기지오만은 그러케 되기까지에는 우리 인류가 여러천년동안 여러가지의 격난을 겪거 온 것이랍니다 아따 우리네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때만 가더라도 녀름에 정히 더우면 찬 물로 밀수나 화채를 타서 마셧슬뿐이지 어름맛을 볼턱이 업섯더랍니다 물론 력사로 볼진댄 신라시대 즉 천여년전에도 빙고를 두엇섯스니 지금도 경주반월성 한기슭에 그 지처가 남아잇고 또 조선이 된뒤에도 빙고를 두엇든 모양이매 서빙고란 지명으로도 알수가 잇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한껏해야 궁중 즉 대궐안에서나 자시엇고 좀더나려와야 노픈벼슬아치들이나 자시엇지 지금처럼 누구나 먹게된 것이아니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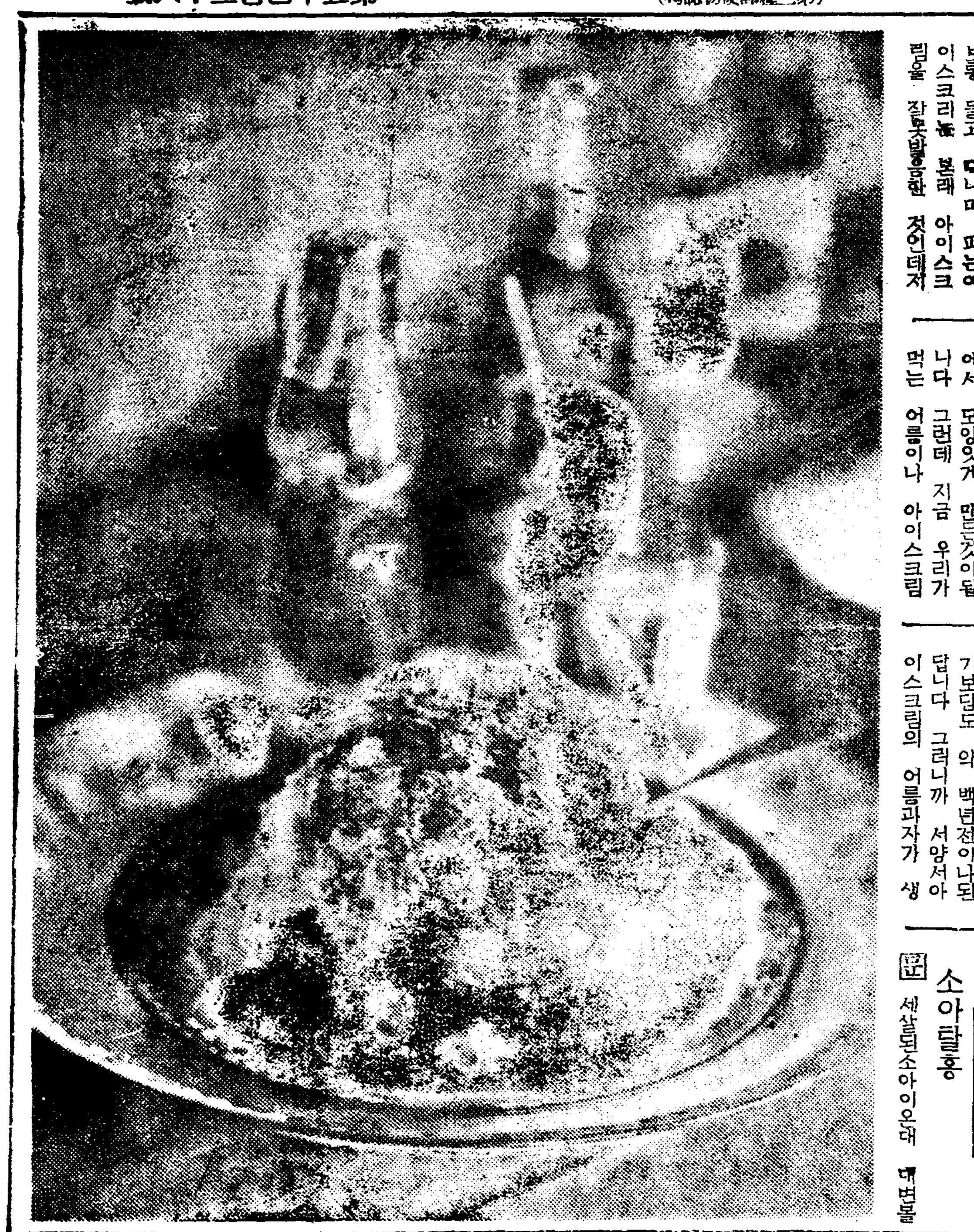
이나 모다 서양문화가 들어온 덕택이올시다

그러니까 불과시 갑오전후 오륙십년미만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인의 말슴이 천주교당 뾰족집에를 갓다가 어름과자를 어더가셧다고합니다 그어름과자란것이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든지 모르겟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일백륙십칠년전 불란서의서울인 파리에서 레몬수를 얼리어 가지고 그당시 모던뽀이 모던껄에게 일대환영을 바덧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독일 영길리 각국으로 퍼지는동시 태서양 이웃은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까지 갓섯습니다。그러나 처음으로 레몬수를 얼리기는 파리에서 류행되기보담도 약 백년전이나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양서아이스크림의 어름과자가 생기기는 근삼백년이나 오래스적입니다 그때의 어름과자란 물론 오늘날의 아이스크림이 아니요 겨오 밀크세키의 종류입니다 밀크세키는 밀크섹이란말을 일본내지서 잘못 발음 한것입니다 밀크세키는 십여년전까지 동경서도 판을 치든것인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에 쫏기어 고만 이름조차 업서지게 되얏습니다。그당시는 서울서도 한잔에 이십오전씩 하엿스니 싼 갑을 바드면서 여간 팔고 잇드니만은 동경서 업서지는데 딸아 한께 업서저버리엇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일천팔백십년경에 미국서 처음 생기엇더랍니다。그것도 일백이삼십년이나 엄추 되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그것이 처음 일본 들어와서 지금 돈으로 한잔에 오십전이나 바더답니다。그러케 터업는 갑을 바더도 개화한 신사 숙녀들은 그 시원한 맛에 반하야 불티날듯 팔리엇다 니까요。



지금쯤이야 좀 웬만하다면 어름인들 자서려고 합니까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나 되어야 먹을맛도 잇고 대접할 맛도 엣지를 안습니까 보통 들교 다니며 파는 아이스크리는 본래 아이스크림을 잘못발음한 것인데저금와서는 찌가 다른 두종류로 되야 버리엇습니다。즉 아이스크리라면 마구맨들어 싸게 파는것이요 아이스크림이라면 고급양식점에서 모양잇게 맨든것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어름이나 아이스크림

우리차지

우리는 어저께 여럿이 개울에 가서 붕어잡이를햇습니다。조고만한 반두하나、쳇바퀴 둘、소쿠리둘、이것들을 가지고 잡은것이 송사리 일흔마리、붕어열세마리、메기한마리、뱀장어한마리엿습니다。

(글쓴사람 국순희)

가정의학

소아탈홍

問 세살된소아이온대 대변볼때에 탈홍이됩니다 보통쉬운약으로 치료할방법을 하교하여주시요 (一讀者)

答 몬저 그원인에대하야 치료하여야되지만 우선 명반 혹은『단닌산 각〇、五퍼센트』의용액으로써 관장하고 一二『퍼센트』단닌산을 솜에적서서 홍문에너시요 혹 주사하는법도잇습니다 그래도 낫지안흐면 결국 외과적수술을 바더야됩니다 (城大小兒科 李聖鳳)

허리삐인데

問 저는 당년이십세된 미혼남자이온대 한삼년전에 길을뛰여가다가 실수하야 허리를 삐엿는데 그후 침도맛고 약도먹고 접골원(接骨院)에도갓섯는데 낫지안하엿습니다 요즘은 더욱 아퍼서 아주죽겟는데 엇던약을 쓰면 조흘가요 하교하여주십시요 (府內愛讀者)

答 그와가티 여러가지 치료를하야도 아니낫슬적에는 필연코 척추(脊椎)에 손상이 잇는듯합니다 꼭『렌트겐』검사를 하야가지고 적당한 치료를바드십시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成鎭)

깜동이치료

問 저는 당년십구세의 미혼녀자이온데 지방청년들이『구롬보』라고 별명까지 짓는 흑색녀자이외다。그리고 검은후에 붉은색이 도는 얼굴을 가지고 잇사오니 자신의생각에도 매일번민으로 비관하고잇습니다。엇어선생님들의 의학적 화장법을하교하야주십소서 (禮山구롬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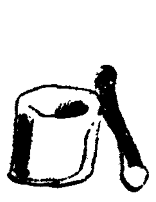
答 얼굴검은것은 건강의상징이니 자랑이될망정 흉은아니올시다。귀지방 청년들이『구롬보』라고 불르는것도 당신의 건강미를 찬미하는 존칭이오 결코 비웃거나 험잡어 말하는것이 아닐줄밋습니다 본래얼굴검은것은 피부에 색소가 다분히 침착한 것이니 약간화장품을 가지고는 희게할수업습니다。자연그대로 두십시오 도회의 청년남녀가 일부러 해수욕 혹은 등산을하야 몸을끄실르려 지방으로 나려가는것을생각해보십시오。그리고 병으로 얼굴이양초와가티 창백하야진사람을 상상해보십시오 돈안드리고 검은얼굴을 소유한당신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成鎭)

家庭婦協會月例會

가정부인협회에서는 오는 십일일(토요일)월례회를 열기로되엇는데 회원되신분은 당일정오정각까지 회비삼전과 점심을싸가지시고 의전병원쪽으로 잇는 경복궁건춘문(建春門)아프로 모이시라한답니다。

小說 보리방아 【六】

蔡萬植 作 / 崔賢郁 畵



장성한 딸을 둔 어머니의 즉은 예민하엿다 정씨는 그안손님네가 무엇하려 온것이지를 철정 보고 눈치를 채엇다

그러고보니 당황햇다 아페서서 들어와 맨첨 말을 못는 안악네며 또 그뒤에 딸어들어오는 사신가랑 되어보이는 안악네며 채릿새나 언동이 나가 넘우도 이집에는 얼리지 아니하게 사치스럽고 귀꼴다웟다

그래서 정씨는 무엇 보재기라도 잇스면 그 범절이 지질히도 궁해보이는 자기집안 꼴악시니를 푹 더퍼버리고시펏다

·그런중에도 제일 무색한것은 선을 보여야할색시(용히)가보리방아를 찌러다가 들킨것이다 그 입은 옷이면——。

그러나 그럿다고 우두허니서 멀뚱멀뚱 보기만할수도 업는노릇이라 정씨는 곳 흔연히 손님을 마지하엿다

돗자리한닙도 업서 먼지안은 마루에그대로안게할수박게업섯다

용히도 눈치가 빠른 아이라 처음에는 무심히서서 오는 손님을 치어다보다가 그만 얼굴이 다홍고추가티 되어가지고는 뒤울안으로 달어나버렷다

정씨는 여간만 막막하지 아니햇다 그는 보고 배운데는 잇는지라 이러한 경우에 손님을 어떠케 접대해야할것을 알고만으잇다 더운날이니 밀수(蜜水)도 타내야 할러인데 꿀은 생심도못한다지만 설탕도업섯다

담배를 선뜻 내노하야할러인데 손님네가 자기네 손수건에 싸가지고온 권연을 끄내어피우두룩 묵묵히 잇슬수박게업다

그뿐인가 딸의 솜씨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때가마침 겸심때니 밥을지어서 잘 대접해야할러인데 이집에서 쌀은 구경한지가 오랫고 또 반찬도 무얼로 해낼 재주가업다 남편이 그지경되든을 아니보이게된것이 마친 다행인것도 가트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잇섯스면 하다못해 동리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빌려라도 올텐데 그러타고 지금 선을보이게되는딸을 내보내어 그것을 식힐수도 업는것이다

『밧갓어른은 출추가 어떠케되섯지요?』

아페서 들어오든 나히만본여인이 거만되게 못는것이다

『에 저 정유생갓마흔 이여요』

정씨는 대답이 제절로 떠듬떠듬해젓다

『에 새악씨 어머니는?』

『임진생 마흔다섯이랍니다』

쓰데업는 나이만 먹어서……

『밧갓어른보담 위로구만요』

『예』

『귀수는 생일이 언제지요?』

『상월 스무날이여요』

『상월스무날……조대로구만……』

이러케 이악이를 하는사이에 나이 좀젊고 간얇힌 여인네는 마당으로 내려가서 뒤짐을 지고행뚱행뚱 집안을 한바퀴 돌아나와다

정씨는 참다못해서 손님을 마처놋고 부엌으로 나와다

용히는 부억 뒤문여페가 서서 마고롱을 만지면서 우둑허니 서잇섯다

『저나그내덜 즈심을 히여서 대접히여야할띠 어떠케허냐!』

용히는 아모대답도 아니한다

『그럴줄 알엇더라면 머리나 빗수잇슬걸……주제(옷)두 꼴을 허구잇섯스니!……』

정씨는 다시금 안타가운 생각에 이러케 뇌사리다가

『너 저 울타리루 뒤집 막내네어머니 가만히 불러서 쌀한되만 꾸어(취해)달래다가 밥좀 히여라 그러구 닭을 한마리 잡거던 와서 닭좀 한마리 잡어달라다구 그리라 응』

『그리두 무엇 달어(달은) 반찬이 좀애나(조곰이나) 잇서야지』

『그것두 딱허다 막내네어머니더러 쌀은 울타리 구녁(구멍)으루 넹겨달라다구 허구 종오라구그리라 그리서 오거던 이것저것 저 옥네네집에가서 어떠다달라구그리라…옹색허지만 헐수잇냐!』

용히가 대답은 업스나 다알어듯고 울타리미트로 가는것을 보고 정씨는 저윽히 마음이되는것가터서 아프로 도라나왓다 나오다가 문득 마루에서 소곤소곤 나는소리를듯고 붓숙나가기가 무엇해서 발을 멈추엇다 그러면서 자연 귀가 기울어젓다

『아주 철빈이요 형님!』

나히 좀 젊고 갸얄한 여인이 하는말이다

『나두 언뜻 보아허니 그런것 갓구만……』

하고 나히 만코 뚱뚱한 여인이 맛장구를친다

『아마 형편이 말이 아닌가분데 형님 엇떠소?』

정씨는 뚱뚱한 여인의대답을 들으려고 기장해서 귀를 더욱 기우렷다

防止이돌지안는淸新한化粧

惡質의벗꺼름을豫防하는法

여름은 女性들의 共通的 皮膚現象으로써 皮脂의分泌이 旺盛하야 化粧이보기슬토록 얼눅지고 또한 이 過剩한皮脂를 調節안코 그대로 벗에걸게되면 가을이되야도 回復되기 難한 惡質的벗꺼름이 생깁니다

過剩皮脂의調節

過剩하게 分泌된 脂肪만을 緩和하게吸收하는 微妙한 作用이잇는 活性特殊白味劑를 巧妙하게 複合粒子에써서 配合한 마스타ー粉白粉은

▼過剩皮脂를吸收調節하야 脂肪이업는 淸新한맛을 오래갓고

▼惡質벗꺼름의豫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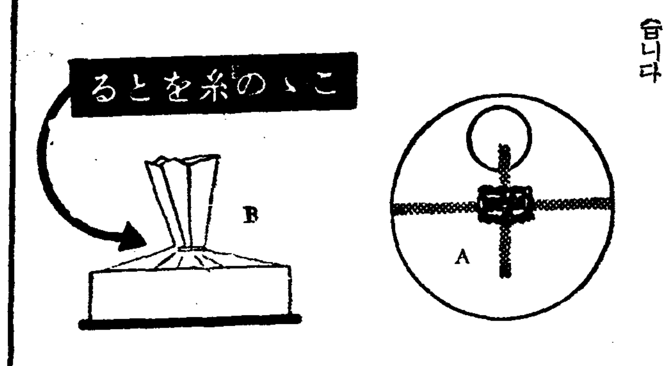
▼衛生的으로 絶對安全한特級色素의 使用

▼佛國의 高級香料의 使用等優秀한粉白粉으로써 女性들의 歡喜와 信賴를 밧고잇습니다。

언제나新鮮한粉白粉

마스타ー粉白粉의 包裝은特許입니다 表(A)를마스지안코裏面에(B)의실(絲)을당기고、使用할만큼使用하라、가루의 飛散을防止하야 香料가 날지안흠으로 새로운 粉白粉을 使用할수잇습니다

こゝの糸をとる



マスター千香粉白粉

傳染病

不注意는禁物!

이상타생각되거든 곳アドース錠을

至今이야말로傳染病이流行할季節이다、身體가妙하게 느릿하고食慾이안나고배가꾸룩꾸룩울고、泄瀉가게속되고、大便은粘液質이며때로는血液이석기고頭痛惡寒發熱될時에는一刻이라도주저하여서는안된다。

그무서운疫痢、赤痢、고레라、腸질부사等은以上과가튼症狀으로부터 始作된다。이런때에는그냥두지말고、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 アドース錠만服用하면腸內에滯積하엿든有害毒素와、나쁜黴菌을、기치지안코吸取하야無害케하야體外에排出하며體內의消除를함으로써、가장安心하고治療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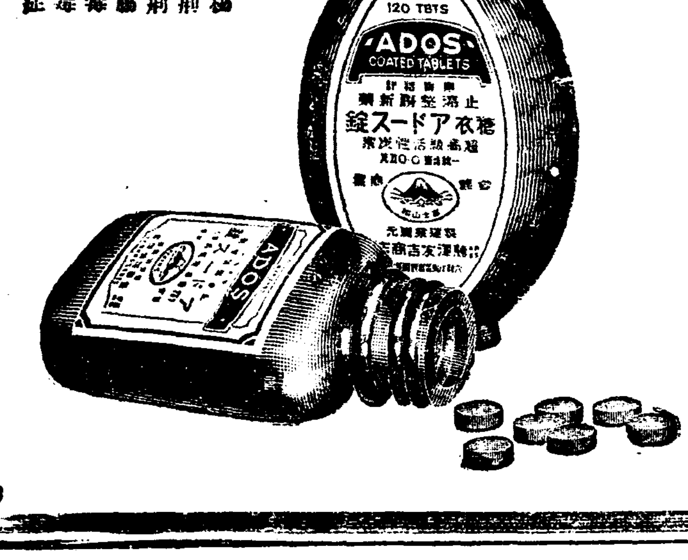
大體여름은黴菌의繁殖이旺盛하야 食物이腐敗되기수우며또한寢冷으로下痢와腹痛을이르키기수움으로豫防과治療에는アドース錠을推奬하는바이다。

糖衣錠 十五錠(.15) 五十錠(.35) 二百錠(1.00) 五百錠(2.20)
錠劑 100錠(.30) 500錠(1.00) 1000錠(1.60)

適應症

疫痢 赤痢 コレラ 腸チフス 急慢性腸カタル 胃酸過多症 胃潰瘍

慢性便秘 一般下痢 醱酵性下痢 鼓腸 食餌中毒 藥物中毒 自家中毒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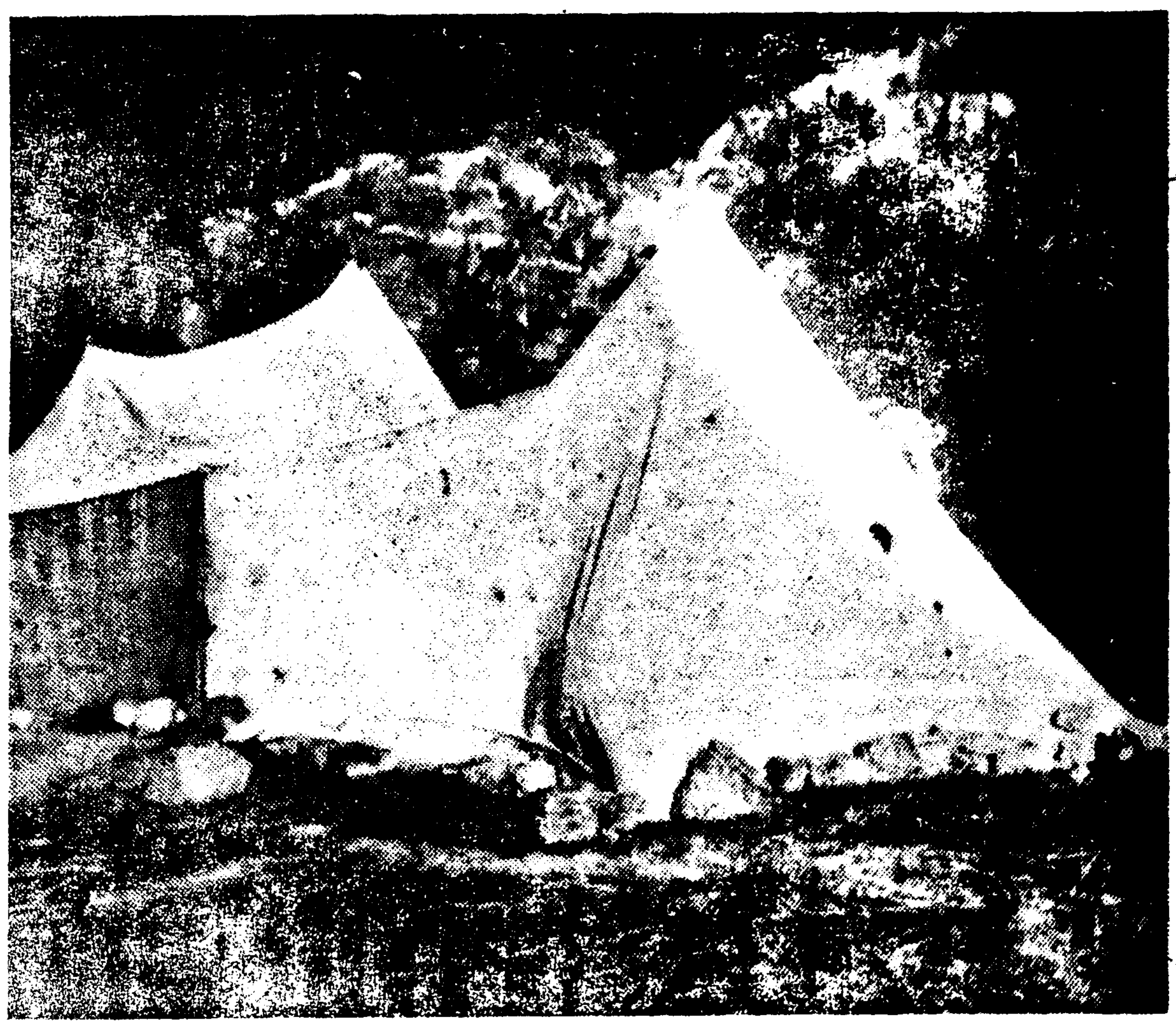


アドース錠

ア ド ー ス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東區道修町・大連市山縣通・奉天加茂町・京城府西小門町



캠핑 (仁川所見)

學藝

戲曲 風浪과의 싸홈 (一)

예-츠 作 林學洙 譯

에머르는아니야, 아니야, 결단코나는 그러케외치지안켓소 쿠홀린의형상 에잇, 바보! 나는『펜』의 원수로랑 나는그더에게 저여인을 어떠케바하할가 아르켜줄려고 일부러왓노라. 그런데도식한대로안혼다니. 아조시간이잇다. 저사류마차의말소리를드르랴 들은기슭을달리고잇다. 그들은 사남고맹을차며달린다. 그녀인은 마차안에 올라안젓다. 쿠홀린은 아직그여페안지안햇다. 그대는저런녀인에게 그를수어버릴작정이뇨? 그의사랑을포기하랴. 그러면 그에게장용한저녀인의 모든힘은 문득좌절되리랴.

에머르 나는쿠홀린의사랑을포기하노랴. 영원히포기하노랴.

(쿠홀린의 형상 칭상으로도라쓰러진다. 탈을 바꾸어 쓸수잇도록 커틴을전부 흥은반쯤치면서 에이트네·잉우바드린이온다)

에이트네·잉우바 쿠홀린 쿠홀린! 요전번우리들이 맛낫던때의 일을 생각하야 보세요 우리들은 원한밤 모래를벼개로누어잇섯지요 새벽이와섯습니다 우리들은 기슭에서 우짓는 물새며의소리에 귀를기우렷습니다 나게로도라오세요 사랑하는이여(침상에둘려친커-틴이 움직인다 보세요 보세요!

그이가도라와서요. 저칭상에누어계서요. 이것이알로 바로그이의정체이에요. 저이를꼭 한것은 내입니다. 다시저이를살게한것은 나의정열입니다! [쿠홀린의형상이 커-틴을잡아다닌다. 그는쿠홀린의탈을쓴다]

에머르 쿠홀린이깨나네!

쿠홀린 그대의팔을! 그대의팔을! 오, 에이트네·잉우바 나는이상한곳에서헤매엿다. 아이무서워.

跋

[第十齣이 다음의노래를 불르면서 물결모양의그려진 커-틴을펼처 칭상과쿠홀린과에이트네잉구바와에머르울감추어버린다.]

第十齣

그대의가슴 웨이다지도 뛰나요? 그거야 알아주기 쉬운일.

아! 나는 어떤 인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안을 건이는 한 고독의 스테츄(彫像)를 보앗노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마다 이상하게도 그의가슴은 떠욱더뛰엿나니,

오, 꿋꿋내 제가슴을 진정할지저,

오, 쓰디쓴 보수(報酬)여, 이만흔 비극의 묘석(墓石)이여!

우리들은 놀래나 우리들은 벙어리다만 한숨과 한마디말을 —지나가는말 한마디를 던질뿐이로다.

비록 도어는 다처 실내의것 모다 변하엿는것 가틀지라도,

비록 이넘은 세상에 그대를 보는 그첫순간 그대게 사랑을 주지안는 사내는 하나도 업다 할지라도, 가장 어여쁜사람을 사랑하던 그, 스테츄에서 다시 그의 너무나 인간적(人間的)인 가슴으로 도라가리라.

오, 쓰디쓴 보수여, 이만흔 비극의 묘석이여!

우리들은 놀래나 우리들은 벙어리다만 한숨과 한마디말을 —지나가는말 한마디를 던질뿐이로다.

그대저에는 아모 상대자도 업나뇨? 아름다움이 완성될때 그대의 사상은 스스로 시들옴뿐 위험도 결코 이러지지는 안나니,

사분삼(四分三)놀글제 별들이 히미하고 달이 둥그러웅그러 그 국도에 달하면 모든 별들은 보이지 안나니라.

오, 쓰디쓴 보수여, 이만흔 비극의 묘석이여!

우리들은 놀내나 우리들은 벙어리다만 한숨과 한마디말을 —지나가는말 한마디를 던질뿐이로다.

[第十齣은 그들의자리로도라가고 시-의여인, 펜드가 드린와 쿠홀린을입혼 그의 실낭을표현하는 땐쓰를한다 맨처음과가티 다른땐써들이 물결을 표현하는의 땐쓰와 균형을 취하기위하 땐쓰를 한다. 이것은 맨첫장면야풍나옥에서비탄(悲嘆)하는편드라불러두자 이것은 오행책(五行冊)에쓰인 몸과가티 괴로움울상송하는특히 흥광한땐쓰라야한다 그가실망의최후의 포-즈를할제 幕이내린다.)

七月創作評……(其六)

「姉妹」와 藝術的感覺의 疲勞

李石薰

以上에가지實例로써만도 柳致眞君의 會話術이 어떠타는것을 짐작할수잇스나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보자.

姜主事 헤헤헤……작은아씨 이것보시오. (명함은 지갑을내보이며)이렇습니다. 모도 굵죽굵죽한것들이야요. (명함을한장씩내며)부장 전무취체역 사장 비서두취 부윤 관장 그리고또 잇죠……교장 면장 조합장지점장 국장 과장 헤헤헤…어떠습니까?

貞淑 애그무시무시하구나

殷鎬(貞淑의父－筆者)글세 어떠케 어마어마한 분들만 아는지 그저 눈이돌릴지경이다.

姜主事 적어두 제교제는 전조선적입니다

貞淑 네가 언제 그러케됏서?

姜主事 안심합쇼 내가작은아씨를 업어키우다십히 햇는뎁쇼 참 작은 아씨가 내등에 업혀다니던때를 기억하십니까? 가려 속곰질두 햇지오 그러구보니 작은아씨두 여간 늙으신게 아닙니다그려

貞淑 그러케 늙어보여?

姜主事 안요, 히히히……무척이뻐서요 어릴때와가티 그러케어빼요.

貞淑 에그머니나! 그게무슨소리야?

◇

貞淑 누가 서집갈라기에 걱정이냐 백죄 어머니가 저런마누라집에다 끄어다녀코 야단이지.

姜主事 줌방 그중매가 그러지안허요 새부잣집 큰아들이아주독조가 돼다구 새부잣집이라면 굉장으루 돈[illegible] 부잣집이군요. 참 작은아씨두팔자조흐신데요. 朴주부잣집은 전에야 땅주장수를 햇지만 지금은 돈잇겟다 댁은 지벌이노프겟다말하자면 그돈에다가 댁의 지벌을 매매하시는 심이로군요.

貞淑 매매를해?

姜主事 게다가 또 아가씨의 정조까지-(傍點筆者)

貞淑 (이러서며)뭐 그건모욕이야!

姜主事 모욕이 뭐입니까? 사실이 그런건데.

貞淑 듯기실혀(門을탕닷고 안으로드러간다)

姜主事 내 나가는것은 종의아들이야요

殷鎬 이놈아 그게 어디단는소리냐.

姜主事 그만 둡시유 우리가튼놈이 아가씨 가튼이허구 사필수잇슬까? 가까히 못혈굼이지오. (退場)

殷鎬 참이상한놈도 다보겟다. 웨 화를 내구야단이야……

(三行略)

殷鎬(건넌방을 드려다보고) 정숙아 웨 화를내니? 그러지마려라 그놈이 일자리도 어더주고 할건데 좀 그랫기는 어떠냐? 돈이 잇스면 종의새끼도 다 빨내는 세상이란다.

以上은 『姉妹』第一幕에서 가장 簡便한 대목中의 한場面이다. 事는바와가티 戱曲의生命이라고 하는 對話術이 稚拙한것은 暫時두고라도 對話의必然性、眞實性이 업슬뿐아니라 보다도 이作者의 自我意欲의 倦怠와 弛緩에서오는 現實把握의 歪曲을빗저 수 업는것이다. 더 敷衍한다면 殷鎬는 적어도 財産을기우려서 딸貞淑이를 東京에보내 專門學校까지 마추게한그 地方-서울가까운곳-에서는 지벌이놉고 큰딸(尹집)의 離婚訴訟公判當日에도 오이려사랑에 風流之友들을 모아 音律을 즐기는 그런餘裕綽綽한 傳統을가진『양반』계급?의 人物이오 姜主事란者는 제아무리뽐내고 不遜한爲人이란더라도 貞淑이헌데반말을못는 씨종의아들인 것이다. 식골가면-더군다나서울가까운곳에서는 아직도 양반對常人의 主從의關係란것은 柳致眞君도잘 알다십히 嚴格하다. 비록 貞淑이가 現在意氣銷沈한 상태에 잇다치더라도 그는女子로의最高學府를卒業한『프라이드』를가젓슬 것이다. 이러한 現實的 條件과 環境에서『貞操賣買』云云의 엉터리업는 脫線과『참이상한놈도 다보겟다』『정숙아웨화를내니』等의 헐개빠진－핀트가어그러진－對話를 꿈엔들할것인가? 이現實의 歪曲과混亂은 全혀 柳致眞君의 直覺力의疲勞와 自我意欲의弛緩 및虛構의心理的遊戱에 由來한것이다.

柳君은只今 懷疑속에 헤매고 잇슴인가? 生活의安逸에 自我의陶醉를貪하고잇슴인가?『姉妹』는 柳君으로서는 數步의退步를보이는 作品이다。사람업는 戱曲界에서 柳君의藝術的感覺의 疲勞를發見하게된은 매우 섭섭하이다. 이에따러서 생각키는것은 柳君이 언제가 旣成作家를 壓倒하는新人으로 推擧한『줄행낭에 사는사람들』의 作者沈載淳氏다。이분은 그런力量을가지고 그後 끔짝消息이업스니 어찌된심인가?『줄행낭』……은 나亦 力作으로생각하고잇는만큼 沈氏의第二巨彈을 목을빼고 期待하는터이다。

이박게『跛行記』(新東亞＝[illegible])『[illegible]岩』는 무슨소린지알수업고『黃昏』(同上＝安懷南)『乳母』(同上＝李無影)『바다』(四海公論＝李泰俊)等은 잘되지도못되지도안흔作品이다。

以上과갓다。(쯧)

批評基準의 客觀性

그것의現代的動搖에對하야

(一) 李秉珏

批評한다는것은 엇더한 對象을 吟味하며 分析하고 理解함을 말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對象을 是認하며 肯定할수도 잇고 非難하며 排斥할수도 잇는 結論을 가지는 同時에나아가서는 對象의 缺點을 除去하며 보담노픈段階로 水準을 끄려올리는 方法을 指示하여야 할것이다 다시말하면 對象의 正確한 理解미테 非難과 肯定의態度를 取하고 나아가서는 方法의指示라는 親切을 가지여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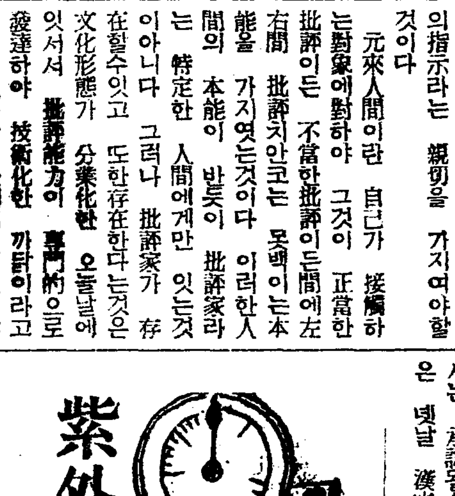
元來人間이란 自己가 接觸하는對象에對하야 그것이 正當한批評이든 不當한批評이든間에左右間 批評지안코는 못배이는本能을 가지엿는것이다 이러한人間의 本能이 발뭇이 批評家라는 特定한 人間에게만 잇는것이아니다 그러나 批評家가 存在할수잇고 또한存在한다는것은 文化形態가 分業化한 오늘날에 잇서서 批評能力이 專門的으로 發達하야 技術化한 까닭이라고 말할수잇다、이곳에서 비로소批評에 잇서서의 門外漢과 專門家의 區別이생기는것이다.

『批評家란 읽을줄을 알고 남에게 읽키줄을 아는 人間에 不過하다』고한 산트·부뷔의말은 批評家의本性을 端的으로 表明한데 不過한것이다 萬若그러타면 文學批評家는 政治批評家나 또는 思想的犯罪의 法律批評家인 裁判官과도 틀림이업게 되는것이다 文學批評이 法律的判決과가티 主文、理由等을 嚴格한書式으로 늘어 놋는다면 이것은 文學批評 이라고 말할수업는것과가티 요사히 朝鮮文壇의 一隅에 나타난 作品의 採點批評도 그것은 普通學校의試驗答案이아닌 創作批評에 잇서서는 承認될수업는것이다 이것은 녯날 漢文書堂의 古風批評과도가티 加上之上、中之上等等의 簡便한方式의 죽은批評보다도 차라리 不遜과 不親切한斷에 잇서서 뒤떠러진 原始形을 버서나지 못하엿다고 할수 잇는것이다 哲學思想과 政治思想의 批評家는 世界觀과 이데오로기-만을 論議하는것과 가티 文學批評이 作品의 世界觀과이데오로기-만을 問題로 할때는 그것이 正當한文學批評은 될수업는것이다 지나간날 이데오로기-批評의 專制時代에는 世界觀과 이데오로기-만이 批評의唯一한基準이엿섯다 이批評의危險은 오늘날우리들이 도-나 切實히自覺하고잇다 그러타고하야서 이데오로기-가업는 文學作品이 創造될수업는것과가티 이데오로기-만으로도作品은創造될수업는 것이다 오늘날 이데오로기-批評의專制에 反旗를들고 칸트的形式主義나 印象主義等이 擡頭되고잇스나 우리는 이데오로기-批評의 專制에 反對함과同樣으로 칸트的形式主義와 印象主義批評에도 反對하는民主的인 基準을세우고、여기서 이것을 擁護하며 正當한 客觀性을 차저내이지안흐면 안될것이다

紫外線과 物質鑑定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一) 文仁柱



紫外線은 그別名을 化學線이라고도함으로 그化學的作用이顯著함은 勿論이거니와 또 그밧게 物理學的作用을 이즐수업다 物理學的作用中 特히 螢光作用이라것이 紫外線의 應用方面에 큰 役割을 가지고 잇스니 醫學方面뿐 아니라 物質을 鑑定할때에 必要한作用이다。特히物質의鑑定에 紫外線을 利用한다는것은 매우興味잇는事實이다。

紫外線은 輻射線의一部分이다 輻射線이란 空間에『에-텔』이라는 媒質을通하야 進行하는 或種의『에넬기』이며 그種類가 多數이나 모다 眞空中에서는 一定한 速度를 가지고잇다。輻射線은『에-텔』中을 進行하기때문에 波動을 일우는것이며 이러한『에-텔』波는 各各 그波長振動數及振幅을 달리하고잇스며 輻射線을 分光하야 觀察하면 可視光線은 七色으로 分光出現하니 可視光線中 最長波長의 輻射線은 赤色이며 最短波長의部分은 菫色이다。이菫色의波長보다 더욱短波長의部分은 不可視光線이니、이것이 곳 紫外線이다。

物質에다 엇더한 輻射線 例컨대 紫外線을 쪼이면 그物質로부터 또한 엇더한 새로운輻射線을 發生한다。이것을 第二次輻射線이라고하니 이것은 第一次輻射線 即 刺戟光의 波長에 比하야 長波長의 輻射線이다。螢光은 第二次輻射線에 屬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螢光이란것은 物質에다 第一次의光 即 刺戟光을 쪼일때에 그物質에서 第二次的으로 發生하는 色彩이며 螢光의波長은 刺戟光의波長보다길다。그리고 螢光의波長은 그物質에따라서 差異가잇는것이다。따라서 螢光의色彩에도 各各 差異가생기게된다。이螢光의 色彩의、差異를 物質의 鑑定에 利用하는것이다。

紫外線은 不可視光線이나 이것을 物質에 쪼일때에 나타내는 螢光은 刺戟光보다 긴 波長이므로 可視光線으로 變하야 [illegible]의 肉眼에 色彩로써 보이게되나 그러나 不可視光線인 紫外線과 可視光線을 同時에物質에다 쪼이면可視光線때문에 螢光을 明白하게 나타낼수가업다。그러므로 物質을 鑑定할때에는 光源으로부터 發生하는 可視光線을 막고 不可視光線인 紫外線만을 透過식히며 또 外界로부터의 可視光線을 막기爲하야 暗室에서 觀察해야할것이다 簡單하게말하자면 可視光線을막은 감감한暗室에서 純全한不可視光線인 紫外線만을 物質에다 쪼이면 그物質은 紫外線을 吸收하야 그物質에 獨特한 螢光을 發生하는것이다。그럼으로 光源으로부터 發生하는 可視光線의 透過를許치안코 紫外線만을 透過식히는 濾光板이란것이 物質鑑定에 반다시 必要한것이며 얻지못할物件이다。

濾光板이란것은 可視光線을吸收하고 不可視光線인 紫外線만을 透過식히도록 製作한 硝子板이다。普通硝子는 도리혀 紫外線을 吸收하고 可視光線을透過식히나 이濾光板에 使用하는 特殊한硝子는 紫外線만을 透過식히나 그中에서 比較的 長波長의 紫外線을 透過식히고 極히 短波長의 紫外線만은 吸收하게되어 透過식히지안는다。

한여름밤의꿈 ①

호화로운 저택의 객실갓기도하고 만돌린과선의 쌀롱갓기도한 커다란 사치한 방이나 손님이아닌 나는 엇더케하야 그속에 뛰여드러갓는지 물론 모른다。괴이한것은 방한편벽이 전면 거울로된것이다。거울이면서도 마즌편벽과 방안을 비취어내는법업시 일면희고 투명한거울——그러면서도 사람의 자태만은 빗취어주는 일종 무한의 세계로 통하는

뛰여들수업는 거울속世界

李孝石

야릇한 문과도가튼 그런거울이엿다。거울속에 뚜렷이 솟아선 자신의자태를 눈부신듯 김으로 바라 보고 잇는 동안에 그 넓은 스크린속에는 돌연히 한사람의 소녀가 어디선지 나타낫다。그는 빗취어진 그림자가아니오 정체업는 그림자만의 그림자엿스니 나는 아무리 방안을휘둘너보앗서도 그의정체를찻슬수는업섯다。물론 얼골조차알바업스나 그러나 희랍신화속의『싸이키』와도 가티 아름답고귀여운 그소녀는 거울속에서 나에게 손짓하며 부르는것이다。커다란 유혹이엿다。그러나정체업는 그를 거울밧헤현실속에서는 잡을수업는 노릇이므로 거울속에서 그를 붓드는수밧게는업섯다。거울속에서 붓든다는것은 내가 거울속으로 드러가야함을 의미한다。나는 그것을 깨닷고 두려워하면서도 결심하엿다。

소녀는 한결가티 부른다。나는 거울가까히가서 몸을밧삭대여보앗다。그러나 거울은과체도아니오 액체도아닌이상은 방패와가티도 구든뜻으로 나의몸을거역함은 당연한일이엇다。나의전신과똑가튼 또하나의전신이 아페와 딱부터서서 나와똑가튼 산용과표정을 하는 것이다。두 육체사이에는 투명한 백지한장이 노엿슬뿐이다。나는、그백지를뚤코 건너편육체와 일지하여야되엿다。먼 저편에서는 소녀가 한결가티손짓한다。

네활개를펴고 거울에부터서서 마즌편 육체를 바라보며 나는 힘을썻다。이상한 일이다。딸깍소리가나며 나는 거울을넘어 마즌편육체와 합하얏다。물파울이 합치는것가튼 깜짝가튼 일치엿다。거울이 부서지는 법도업고 내몸이 상하지도안코 마치 일광이 투명한 유리를뚤코 들어가듯이 나는거울을넘어 세상으로들어간것이엿다。구멍을[illegible] 들어간것이 아니라, [illegible] 취어들어간것이다。[illegible] 밥부게 들어온 뒤스자취를 [illegible] 라볼여유도업게『싸이키』의손이 날새게와서 나를 [illegible] 두몸은 [illegible]가티 [illegible] 작하얏다。——거울넘의세상은 발붓칠곳업는 무한한 허공의 세상이엿다。눈부시는 샛파란 창공을 두몸은 날개를 어데지향업시 활활 날엇다。자유의혼이엿다。바람이 가삽아래 채이고 전신이 물가티 비엇는데 오금이 노흘듯이 근실근실한 아래로 멀리바라보이는것은 바다엿다。바다와 하늘이 한비치여서 두눈이 뚤너패일듯이 푸르고 차고 아물아물한－그 무서운단료를 깨트리는것은 갈금 발아래로스치는 흰구름의떼엿다。구름은 안개가티 싸늘하게 몸을둘너싸고는하얏다。

이윽고 해변이보엿다。구불구불빠친 모래불이 바다와륙지와의사이에 외줄의흰 선을 그엇다。갈매기의 무리가우리보다는훨신 얏게 해변을날엇다 연해를향해하는 작란감가튼 조그만한 [illegible]선이 가는연긔를뿜으며 움죽이는운치도업시 벌네가티 슬금슬금기여간다。확실히 사람사는세상임에는 틀림업섯다 우리는 으늑한 해변의한곳을 점치고 나리기로하얏다。락하산으로 떠러지는것가티 삽분하게 가볍게 모래우에나려섯다。놀난것은 나려서보니 몸에 감엇든 옷이업서젓습니다 날으는동안에 옷은 한거풀한거풀 벗겨저 모르는결에 발거숭이가되것이엿다。더 이상스러운것은 옷을벗엇슴에도 붓그러운생각이 조금도업섯습니다

해변에서 몃츨을지냇는지몃달을지냇는지 헤아릴수업다。첫재 그곳의하로는 결코 이세상의하로가아니엿다。그곳에서지난몃츨이 이곳의 몃십년맛잡이가 되는지도 모른다。그곳에서는 시간도 무한속에 녹아버려 분명한관념과 구분이 업다。

해변생활에 흥족한 우리는다시 날개를어더 날기 시작하얏다。거울 이쪽세상으로 돌아 오자는것이다。물론 무한의세상임으로 길표도업고 장성도업는 왓든길갓기도 하고 처음갓기도한 창공을 날고날어 거울잇는곳까지 이르럿다『싸이키』는 거울이쪽사람이아님으로 나는 눈물의작별을짓고 혼자 거울에다 몸을부첫다。들어갈때와 가튼요령으로 나오는뜻이엿다。몸이 무슨조화로 관선가티 깜짝갓게 거울을새이나롤 아울러 관찰하라고 정신을차리고 몸에힘을 주엇스나 거울은 그런관찰을거절하는드키 몸의힘을 못니겨 왓삭깨트러지고야말엇다。요란한소리게 잠이깨엿다。

육체와령혼과의지경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비밀이요 현실과무한과의 접촉점은 열리지안는 신비의문인가부다。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新刊紹介

▲아이생활 七月號 夏期放學特輯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定價十錢 送料一錢

▲新家庭 七月號(內容)女性同題特輯 初期女流學生面面 家庭主婦의常識欄=盛夏의結婚外數篇 梨花가社會에내노흔일꾼들 讀者文壇、隨筆、詩、小說等其他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陸上競技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西町三 一成社 振替東京四六五六二番 定價五十錢 送料一錢五厘

▲高麗時報 第四十六號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十錢 發賣所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出版部振替京城七六六〇番

▲카톨릭靑年 七月號 發行所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릭靑年社 振替京城一一、三四六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探求 第二輯(內容)創作=流伐幻影 詩=生命外數篇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壽松町 一二三 探求社 定價十錢

▲女論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三三 女論社 振替京城八一二番 定價十錢

▲시골말 캐기 잡작(方言採集手帖) 崔鉉培著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四四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專賣の朝鮮 專賣創立十五週年記念特輯七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 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錢

▲靑年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六番 定價十錢

▲文敎朝鮮 七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番 定價三十錢 發賣所 京城府本町一丁目 大阪屋號書店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再發의 危險을 避하야……

腦溢血 中風 (自宅治療)

四十歲에 걸니는 動脈硬化、高血壓의 解決

中風症의 한숨 이라고한腦溢血中風은한번다 엇드래도、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반다시、最初보다훨신더重하야저서、再發後에죽는것이오、엇다、生覺하야서全快祝賀까지한분이再發하야서、生命까지일허버리는일이往往잇다。

一家의礎石인 사람이업서지면、家庭은 暗憺하게되야서財産은散財되고 遺族은 悲慘히도彷徨하게되오。그리하야 한번中風에걸린분은、普通身體와는 달은것을잘生覺하야서、再發치안흔治療法이重要하오。그療養法을하는데도 中風에對한注意를알고 認識不足이되며、[illegible] 도리여 害되고까지잇서서

多大한金 額을 使用하야도 無益이되고、回復이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또日常食物은그맛이아는바와가티成分이틀여서、가운데는 特種의性質을 가지는것으로、中風患者에 好不好가잇서서直時病狀에 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公益을爲하야모-든詳細를 여기말하고십흐나 遺憾이나紙面이有限하야希望한분에特히仔細한것을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說明書는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高血壓의原因으로알직알고、또自己가獨自診察法을가르켜그豫防、젊어지는法을實際有効的으로 指導하고 더구나 中風의突發을警戒하는 中風血統의人、多血肥滿의中風體質의人、神經質人、酒煙을조와한분、平素머리만히쓰는분으로도中風에안걸인 安全豫防法으로말이고 現在中風에걸여서잇는분을爲하야는 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 조흔것、납븐것을區別하야自宅에서 돈과 時間 손올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아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引導하야等閑히할수업는有益한 것이다。

希望한분은 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忠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問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밧고잇소한번거정한 中風患者라도治療良法을어드내게되고幸福한活動의몸이되야 長生하여잇는분도적지안흠으로 悲觀은損이오 早速히葉書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直接照會하시오。

척수병 脊髓病 一生의後悔업도록 今日곳葉書를

脊骨變形 骨腐敗症 骨節痛 化膿腫症 痲痺 땅기는症 腦의障害 류마지스 神經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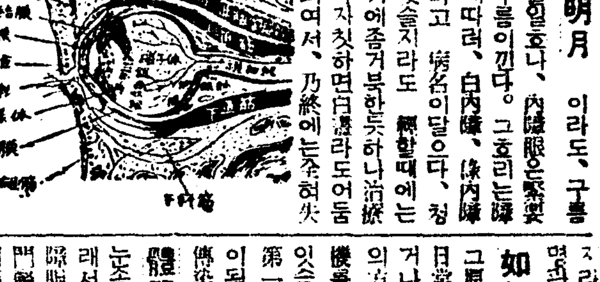
腦髓가아래로延長하야、背骨의中을한갈내 색기와가티通하야、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事物을생각하고判斷하거나하는것은、腦髓의作用이나、뜨거운火箸를쥐인때、생각할새도업시곳곳거나다리가밋그러진瞬間에、넘어지지안으라고하는等敏速한擧動은、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脊髓病에걸니면、陰險可恐할病毒때문에、身體의柱礎인脊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되는等、身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變質되여甚한것은腐어서膿出이되고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全身的故障을生하야、[illegible]擧動이鈍하며、手足도不隨意로되여、往往步行도困難의저를바라로되고、腦에도害를끼치어서、腦力의發育을남부게하며、白痴로되는수도잇스나、이故로心身함脊髓病에有名한良藥이잇다아무리大金을써도、常座藥과姑息인治療로는、根治안되여病은도리여으로언제까지든지、一時에곳치게할것은進行惡化할뿐이니、決心하고、病이되는原因인體內의病毒을全部掃淸치안으면안이되다게을니하지말고、一日이라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等閑히하면意外인不具廢疾로되는此病은、年少者에만흠으로特히保護者父兄은勿失好機로早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

兵庫縣明石市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로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藥書를주십시요、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放心하면漸漸 청명관이

一日이라도速히 곳처야할 諸眼疾의 療法에 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구름이끼면빗츨일흔다나、內障眼은緊要한瞳子에구름이끼다。그호리는障害物의色에따러、白內障、綠內障、黑內障이라고 病名이달으다、청명관에걸니엿슬지라도 網膜에는物體를보기에좋겨북한듯하나治療를잘못하야자칫하면白濁하라도어둡게어두어서、乃終에는全혀失明하게되여서、明瞭한世上이暗黑으로되는사람이업지안타모처럼多大한治療費를

如何한性質 眼質인가 그原因과病理를 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養生方法에도잘못되거나 全혀못하는수가잇고또治療의方針을 잘못하야失敗에빠지는사람이 잇슴은 可惜한일이다 청명관이는外部로부터傳染한眼疾과 달러서自己의體質과 畜積病毒 때문에눈속으로부터 생긴眼疾이다 그래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함으로 進步된眼科專門醫學에잇서서도、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適當하다고 말하나

眼症의內服藥 으로愼重且熱心의研究를 거듭하야 苦心創製된以來年年愛用者가 增加해지고、良藥이고 도多數가比較的 싸다한다 眼疾中가장걱정되는 內障眼을 主로하야、紅彩炎、網膜炎、視神經萎縮、視神經炎、角膜白斑、眼精疲勞症、夜盲、梅毒性眼疾等에도 効力이잇다。自宅에서

經濟的으로 治療가便利를 계됨으로、時間이바쁜사람과、遠隔不便의地方의患者도非常히기쁘하며 大槪眼疾은、治療의時機가 重要하니、게을니해서는 안되니 一日이라도速히本劑를 實驗하시도록、將來를爲하야 마음으로忠告하나이다。

청명관이되는 眼疾은 처음에 어떠케될가?

청명관이、其他眼疾의 原因과 病理의알기쉽게仔詳한것、飮食物의可否、選擇法日常의養生治療의 注意에이르기까지 親切히씀 說明書는、公益을爲하야 無代呈中이니、兵庫縣明石市岩屋神社前進光堂本家로朝鮮日報에서 보앗다 明記하야 葉書로 照會하시라 곳全部無料送付함

連載野談 (六〇)

布衣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복울짓는그칼 〔五〕

일즉 부여왕이 그 이상한까마귀와 글을 대무신왕께보낸후 여러신하를 모호고

『고구려왕이 어떠케답과 어떤 행동이잇슬고?』

하고 그 장래일을 의론한일이 잇섯다.

여러신하들은 이러니 저러니 별로 의론이 만타가

『고구려왕은 그 천성이 영특한중 또한 욕심이 만흘터인즉 이어니 반드시 그까마귀로하야금 북방비치 남방비츠로변하야슥는 해석을미뎌 군사를 움지길것이오.』

하고 고구려군을 방비할것을말하얏다.

그리하야 부여왕은 곳 친귀군사를 한데 모아노코 아프로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게되엿다

그런데 과연 고구려의 대군이 남쪽지경을 넘어서 드러왓다는 소식이들리고 뒤미처진흙으로 말미암아 진퇴양난의곤경에 빠젓다는 소식이 들여다.

어에 부여왕은 고구려 대군이 진흙에 빠저 큰 곤경에잇다는 말을 듯자 크게 기뻐하야 이 괴회를 일치아니하고 곳 고구려군을 대번에 처파한후에 크게 고구려도성까지 쳐들어갈 작정을 세웟다.

그래서 부여왕이 대군을 잇끌고 풍우가티 달려오게된것이엿다.

부여왕의 대군이 몰여오는 소리가 들라자 고구려군중에서도 또한 요동이되엿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여러날길에 시달리여 몸시나 피곤하거늘 더구나 끈끈하고도 미끄러운 진흙에 빠저 허덕어리는중 부여대군의 습격을당하게된 때문이다.

전군은 고구려군사의 위래할을 배척간두에 다달럿다.

그런데 부여군사가 달려오든중 역시 그진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 말까지도 네굽이 빠 배히어 옴나 말짝을 못하고 서잇게되엿다.

어때 대무신왕께서는 매우란처한 괴색으로써 다만 부여군의 동정을 살피시다가 부여군 역시 진흙에 빠저허덕어리는것을 보시고 여러군사를 향하사

『오 짐의 충성 되고 용맹한 군사들 이여! 조국의 흥망이 정히 이때에 달린것이 충성과 용맹이 북바친 우리 군사아페는 태산도 업고 대해도 업스려든 허물며 진흙쭘이라?』

하시며 룡마지루를 하시고칭히 진머리에 나스섯다.

이때 선봉장 괴유가 칼을노피 들고 우뢰가튼 소리를 질으며 비호가티 내달어 부여군을 헤치고 곳 부여왕에게 달여 들엇다.

부여왕도역시 창을 들어 괴유의 칼을 막을새 그 칼과창이 부딋치는 소리가너머나 생생하야 듯는자의 뼈가자릿자릿하고 두말이 뛰는바람에 말굽에 채인 진흙덩이가 공중으로부터 어지럽게 쏘다지매 보는자의 눈이 어른 어른하얏다

이와가티 부여왕과 괴유가한데 어울려서 싸우는중 별안간

『이것이 부여왕대소의 머리가 아니냐?』

하는 우뢰가튼 소리가 들리며 괴유가 부여왕의 머리를 베혀 길것에 뛰어들고 부여군중을 행하엿다.

이에 고구려군사는 북과정을 울아 급히처며 부여군을 크게 습격하엿다。

슬프다! 임검을 일흔 부여군사와 그백성들은 의지할곳이 업서 사방으로 허터질새 부여왕의 아우가 그남은군사와 백성 약간명을 거느리고 갈사강(曷思江)근처로 도망하야 스스로 갈사왕(曷思王)이라 일컷고 그뒤를이어 부여왕의 종제(從弟)가 또한 남은 백성을 잇끌고 고구려에 이르러 항복하얏다.

대무신왕께서 부여를 크게파하고 한국하사 론공행상을고루게 맛치시니 나라사람이떠욱나라에게 충성을 더하얏다。

그런데 대무신왕께서는 부여마을 대개 평정하것을 만족히 역이시지 아니하는양을 보이시며

『복! 복! 그이상한 복!』

하시며 매우 근심스러운 긔색을 보이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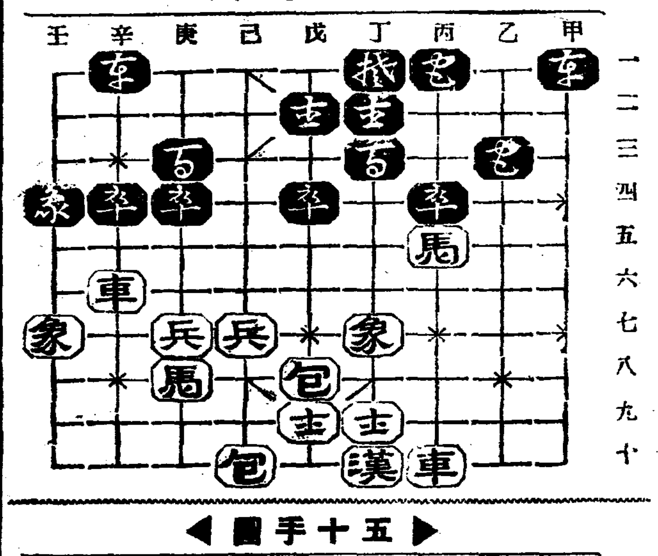
●曆● 七月十日 (金) 舊曆午五月大 (廿二日) 癸巳·水·室·開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 (舊初三日) ●小暑七日 (舊十九日)

將棋名手對局譜 (五)

主催 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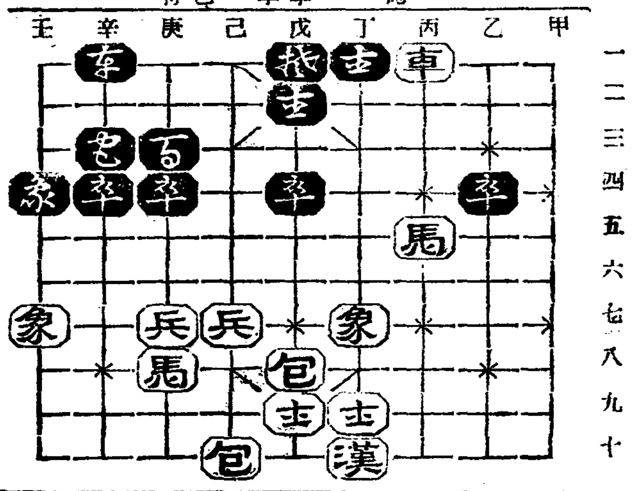
李在鳳 (漢先手 兵一減) 對 李英鎬

◀第十四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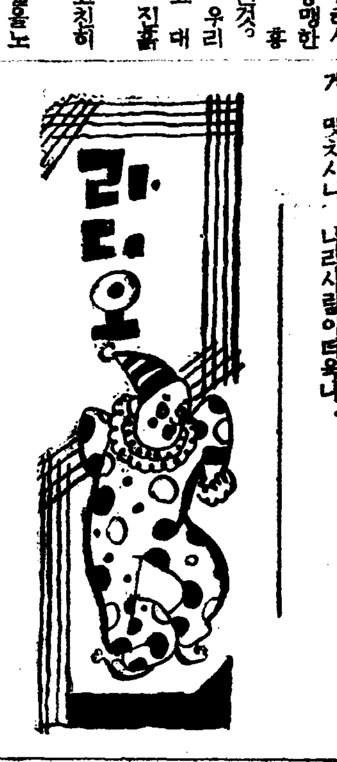


◀第十五手圖▶

丙十車—乙十
丁三●—乙四
乙十車—乙四打馬
乙三●—辛三
辛六車—甲六
丙四●—乙四打車
甲六車—甲一打車
丁一●—戊一
甲一車—丙一打包 呼將
丁二●—丁一



라디오



九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1、달밤……하리슨作曲 2、여름……洪蘭坡作曲 二、피아노獨奏 1、미뉴엣트 파데레흐스키作曲 2、即興曲 쇼-베르트作曲 三、獨唱 1、자장가……브람-스作曲 2、사랑스런月桂꽃……안-作曲 獨唱 鄭玉善 피아노獨奏 鮮于惠 伴奏 李興烈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一) 水中動物이야기 城大豫科生物學教室 趙福成

◇同八時 講演 森鷗外의藝術 咸秉業

◇同八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大丈夫 二、夢中歌 三、孔明歌 鼓手 丁元燮 李素香

◇同九時 "라디오·드라마" "사랑에울고、돈에속고" 一幕—林仙圭作

配役
黃鐵洙……黃澈
紅桃(그누의、妓生)……車紅女
沈影湖(紅桃의戀人)……沈影
春外春(紅桃의동무妓生)……南宮仙
閔海靜(影湖의結婚女)……沈京順
朴永澤……朴齊行
閔相玄(黃의친구)……柳玄
金相洙(同)……金影水
沈鳳玉(沈의누이)……金素英
水蓮(紅桃의동무)……韓銀珍
沈의어머니……金仙草
沈東浩(影湖의父)……金東圭
演出 朴珍 青春座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童話劇 大阪童話協會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同七時三〇分 (東)

◇同八時 (大)浪曲 異中藏

◇同八時四〇分 (大)浴曲 寶塚少女歌劇團月組生徒

◇同八時五十五分 (東)浴曲 市三

◇同九時五分 (東) 落語 虎田喜

十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古談 『義俠出世』 李雲林

◇同三時十五分 婦人時間 『食慾不振과그原因』 府民病院內科長 朴鍾榮

◇同六時三〇分 唱歌 加明普通學校生徒 伴奏 咸福順

◇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三) 『바다물이야기』 趙炳俊

◇同八時 趣味講演 『避暑地巡禮』(一)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詩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解說時調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八時五〇分 배따라기外一、 一、배따라기 二、장기타령 三、개타령 四、가진방물가 金紅桃 金素運

◇同九時三〇分 名曲鑑賞 一、레코드獨唱(가)菩提樹 (나)그네는愁心……슐레지크獨唱 二、레코드獨唱(아)사랑코노래 (나)사시못으는사랑……추젤페 三、소프라노獨唱…자만作曲 一레獨唱 歌劇『婚姻行中』『지난날잘잇거라』……베르디作曲 (레코-드演奏) 朝鮮音樂協會 李升學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 松浪旭東

◇同六時 (釜) 童話劇 釜山고도모協會

◇同七時三〇分 小講演 海老三郞

◇同八時 二曲과三曲合奏 福谷逸秀外

◇同八時三〇分 (東) 獨唱 內田榮一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春日亭淸鶴

十一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大) 管絃樂 —桃谷演奏所에서中繼— 쑤페의歌劇…말첼·드라노아作曲 大阪라되오·오-케스트라 指揮 倉重瞬輔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녀름과마음의緊張 尹聖相

◇同六時三〇分 童話 李定鎬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中央日報 李相熙

◇同八時 趣味講演 『避暑地巡禮』(二)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오랑캐꽃 二、눈물의鍾路 三、曠野의哀歌 四、映山紅 五、波濤를벼개삼고 姜石燕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긴난봉가 三、병신난봉가 四、사발가 五、노러가락 六、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九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友情" 一場 —【配役】— 유아나…金英珠 유간…李雄 요르케…崔鳳則 老僕…申泰善 劇藝術研究會 指揮 柳致眞 劇本 李雲谷

第一放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六時 (東) 偉人이야기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三〇分 (富) 座談會 富山營林署長前島象晴外

◇同七時三〇分 (東) 舞臺劇 中村扇雀外

◇同八時三五分 (東) 自作朗讀 里見弴

◇同九時 時事解說

스타ー의消夏法 (一)

손·부론델

讀者社交室

▲華人本欄을通하와左記를仰問하오니 讀者先生님中에 아시는분이 게시면 本欄이나左記住所로 火急通知하여주시면 感謝萬萬이오며 當者로서 其恩惠를刻骨難忘이로소이다

本人의게 放浪의身勢로四顧無親한 當年二十二歲의 靑年이寄宿한지 三個星霜이 밧귀엿는바 一字無識이라 姓名도모르는 字를 쓰는지 몰으는데 故鄕에서 『金갑진』이라고 불럿다고하는데故鄕은『慶北榮州郡豊基面우금동』이라고 하며 離鄕時에 本家住所를 써주든것을 中路에서이저버렷다고하는데 故鄕에는 親兄과 妹夫도잇다고하나 其住所도몰으며 더욱 老來의兩親님이게시다고하며 出家以後에는 存亡을全然不知라「가진」이는 愁淚長嘆으로 過日하는 孤獨한人間을爲하여 葉書一枚로 通寄하여주심을 바라오며 勿論兄이나 妹夫되는이가 通知하여주시면 形言할수 업는 기쁨이올나이다 特히 榮州郡豊基面諸位께 拜問하오니 짐작이게시는분은 可憐이 역이사 通知하여주시면 當者로서 手舞足踏하리이다 再生之恩人이올시다 平安北道寧邊郡妙香山上元庵 尹壽峰

▲昭和十一年六月卅日 貴報社交室欄을通하와問議하신 遂安李波生에게 己巳年五月十日은 陽曆으로 昭和四年六月十六日 日曜日 日辰은壬辰이오니 詳考하소서 橫城邑內 東洋旅館

▲尋兒 나의從侄九歲男兒(名 昇鳳玉)가 昨年겨울京城孔德町의自己伯父宅에갓다가 昨年十二月十四日(陰十一月廿日)麻浦電車孔德町停留場附近에서 迷路된 終無消息입니다 該兒의特徵은 이가全部露出됩니다 그리고 迷路時衣服은 上下服衆周衣가全部黑色이엿슴니다 京城西大門外에 居住하시는분께서 該兒의踪跡을 짐작하시든지 또는修養하신분으로 左記處通知하시면 修養費外에 數十圓의謝金을 바더들이겟습니다 該兒의父母는 現在每日呼哭으로지내니 目不忍見입니다 京義線金郊驛附近陵洞 昇應順

▲現在市內公普訓導 左記要件下에 家庭教師를志願함
1、男女不問、十五歲以下兒童에게關해서는 一切委囑할事
2、報酬는絕對無用
3、該兒童과는必히同居
4、通信은社交室『桂洞楚夫野人』

▲桂勳典氏住所를 알으려고들으신 讀者에答함 平安北道宣川郡深川面付皇洞××番地입니다 番地는仔細히 몰으겟슴니다 그리고 내게도片紙해지시요 이제부터親近히 지내봅시다 平安北道鐵山郡鐵山面東川洞 鄭益漸

▲지난二十八日 本報社交室에서 早稻田中學講義全科를 持有하노라하신이에게 打聽합니다 當身의그것을 내가사보려고합니다 代金如何와 交換書籍은 뭐인지를 알녀주십시요 本欄을通하시든지 不然이면 昌城郡靑山市 金寬奎에게로

▲東京某專門學校에 在學中인 苦學生입니다 苦學으로서는 제가硏究하는方面이 順調이게나가지못하겟슴을깨닷고 東京에 어린子弟(中學校程度)를 留學시킬 父兄이잇거든 제게家庭敎師로 責任을맛기면 極力指導하겟스니 만흔同情을 同胞여러先生님께 바라는바입니다 (住所氏名在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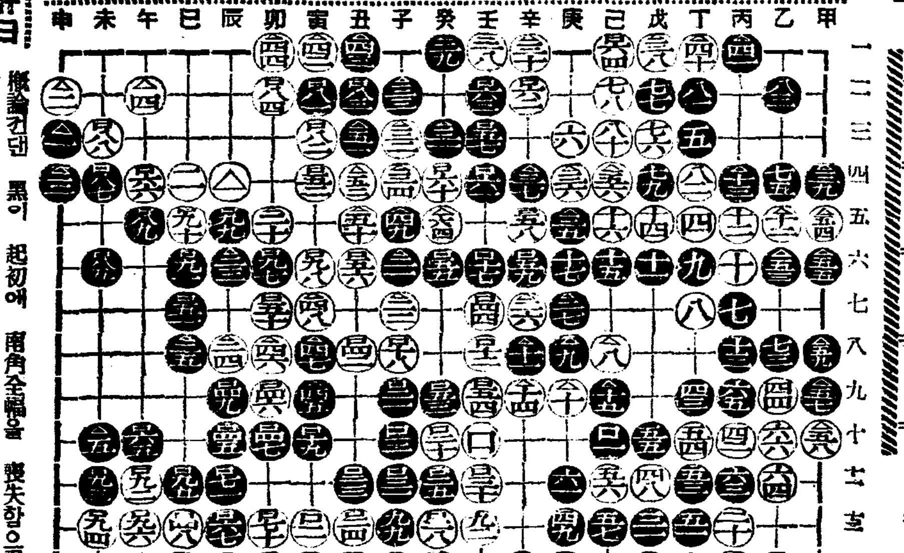
▲骨董癖게신諸氏에게— 小生이집안事情으로 今番古器約二十個를賣渡코저합니다 항아리세개 甁十餘個 其他입니다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問議하여주십시요 京城府典農町五九六番地 申綺休方 骨董生

圍碁對局譜 ＝15＝

主催 本社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丙의一 ○寅의一 ●丑의一 ○卯의一 ●寅의九 ○卯의八 ●寅의八 ○寅의七 ●子의五 ○丑의五 ●丑의三 ○丑의四 ●乙의六 ○甲의五 ●甲의六 ○己의四 ●甲의九 ○甲의十 ●甲의八 ○癸의十九 ●丑의十八 ○子의十九 ●丑의十九 ○癸의五



蔡極文氏評日 概論컨댄 黑이 起初에 南角全幅을 喪失함으로 餘僧이 尙存하야 隣接한 白長馬를 呑取코저하다가 自體가 旺盛치못함으로 因循姑息하고 白은 勇進力이 좃금 解弛한거이다 이틈을 타서 黑이 更益精力하야 結局을 잘하기로 自恃大得한 所致로 計戶八場에 別無差等이나 二目不及은 惜敗라하노라

互先 白 丁奎春 黑 柳鎭河 白三十七戶 黑三十五戶 白二目勝

絢爛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 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르」
【바이올린】 一、「콘체르토」(G長調)―第一樂章」「비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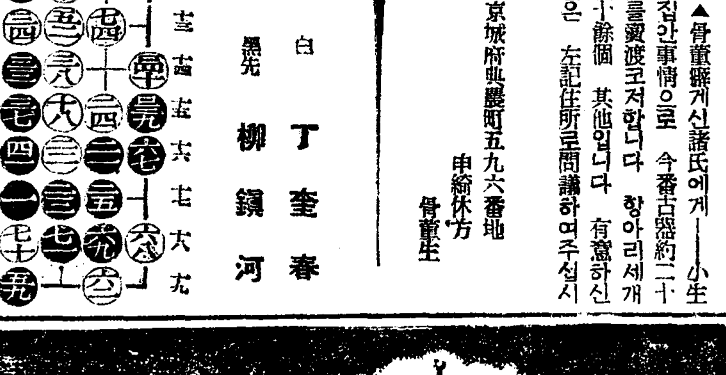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不眠 頭重

腦의充血을除去

過勞와刺戟으로부터 充血된무거운腦를鎭靜식힐好機는只今!

頭痛藥은一時的 腦神經을痳痺식히는頭痛藥뿐만의服用으로서는不充分하다。

健腦丸의綜合効力

本劑는于先腦의充血를除去하며、亢奮을鎭定하며、快便을보게되며、참으로安眠에引導되며、頭痛頭重을消散식혀恒常頭腦를明快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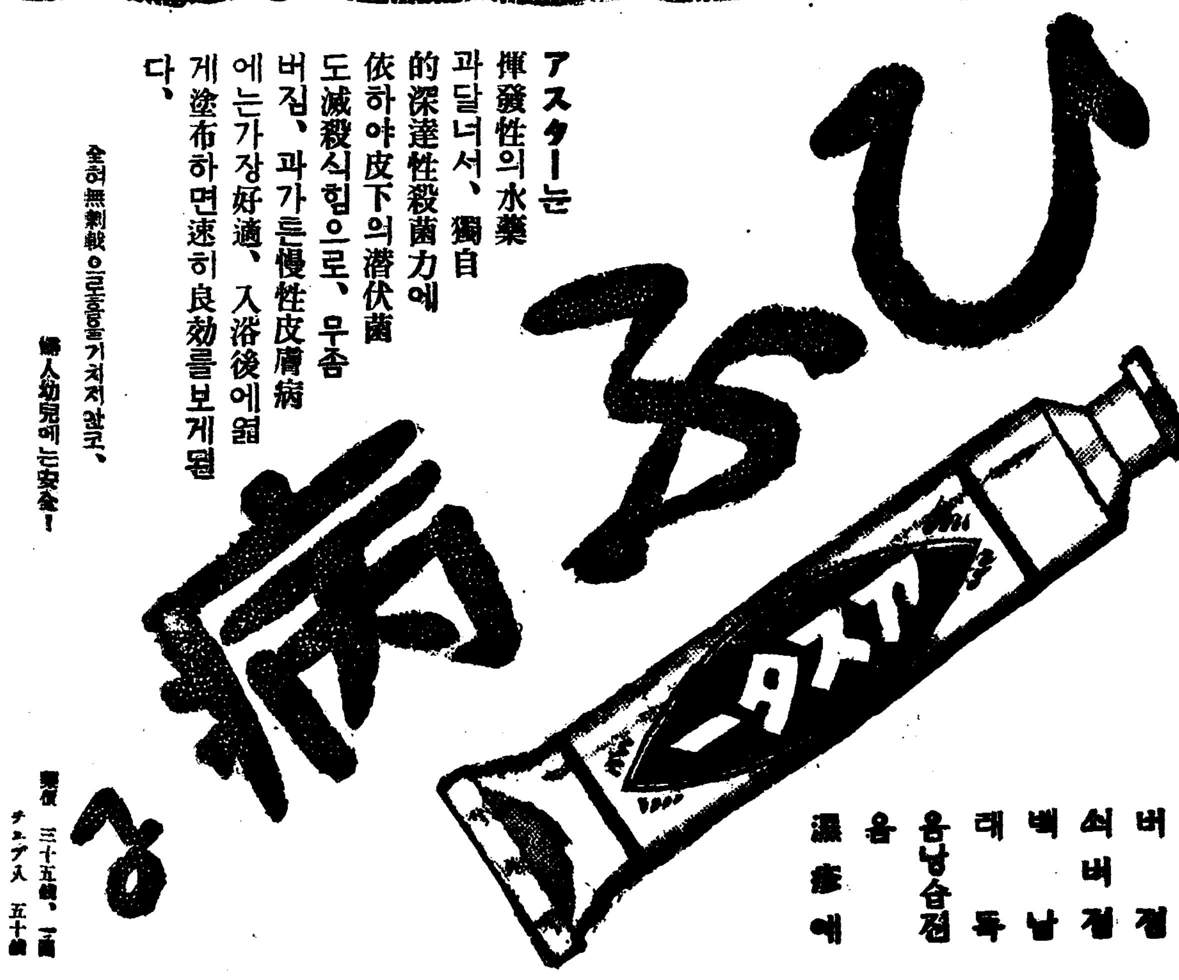
主効 頭痛、逆上、便秘、不眠 健忘、憂鬱、히스테리、神經衰弱、中風、卒中

健腦丸

定價 三十錢より十圓迄 各藥店にあり

쓰리지안코、입호지안코、內攻치안는

殺菌力强하고、가려운것을막고 分泌를制止、治効빠른 皮膚病季의常備藥!



アスター는 揮發性의水藥과달너서、獨自的深達性殺菌力에 依하야皮下의潛伏菌도滅殺식힘으로、무좀버짐、과가튼慢性皮膚病에는가장好適、入浴後에엷게塗布하면速히良効를보게됨다。

主効 무좀 버짐 쇠버짐 백납 래독 음낭습진 옴 濕疹에

全혀無刺戟으로홍을기치지앗코、婦人幼兒에는安全!

定價 三十五錢、一圓 チューブ入 五十錢

發賣 大阪 東京 丹平商會 全國藥店にあり

神聖한教會堂이 肉迫의修羅場化

◇…動機는幹部級의私感衝突

南平長老會不祥事

【南平】지난 칠일오전 전남남평(南平)예수교장로교회당에서는 주일예배진행중에 그교회외전도사 서모(徐某)가 과도를 들고 교회당에 뛰어들어 면면간부들에 계획적으로 교회당의 강습일부를 장그고 배전도사와 미국인선교사모씨에게 노동회의를하며 그교회의전장로의 아들인 김모(金某)는 단도까지 휘두르면서 유비하는등 실로신성무고하여야할 교회당이 일대수라장으로 화하야 결국경관의 출동까지잇슨후 겨우 진압된 불상사가잇섯다는대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동교회의 장로(長老)로 잇다가 얼마전에 사망한 김세찬은 동교회에 취임한이래 다소의공적도 업지안헛스나 원래부터 그의행동이신성한 교회의장로로서 불미한점이만허 일반의여론이 자자하든중 전과전도사 서모와집사사오명이 김장로의비행은 신성한교인의추태인동시에 섬경에부적한행위라하야 연명으로 선교회측에 진정하고 김장로의 근신(謹愼)를 충고한사실이 잇섯는데 당시김장로는자신도 례배석상에서 자신의행동을 사과하고장래의근신을 서약한 사실이잇섯다한다 그런데 전과김장로가우연히 지난음사월이십일에 뇌빈혈로그만사망하자 평소부터 그를증오하든 몃몃교인들과 그의자제측에서는 김장로의사인(死因)이 전과서전도사가 그의무근한비행을폭로하엿슴으로 김장로는 항상울만을품고잇다가 그만화병으로 사망한 것이라하야 복수의목적으로 서전도사를축출할것을 계획한후 그동안여러차례 축청간절으로 서전도사를협박도는 구타하야 축출을시키라하엿스나 일반교인의반대로 목적을달치못하고잇든중 지난오일의 례배에는 광주로부터 미국인선교사남대리모사가 래참하자 그기회를리용하야 서전도사를축출하여달라고 그와가튼소동을일으킨것이라는데 아즉도량편의분쟁은 계속중 해결이막연하다하며 신성한교인들로서 말할수업는추태라하야 일반의여론이자자하며 그해결의결과를 주목하는중이라한다

當局의慰撫도一蹴 公職者辭表提出

師範校問題去益多端

【元山】루보=사범학교문전에대하야 원산공직자일동이 련메사직을 결의하고 이미 세상에성명서까지 발표하야 그태도는더욱강경함에 따라 원산정내총대련합회에서는 유임권고를하는등으로 일반부민은 공직자들의태도를 주목하고잇든바 지난팔일에는 원산부윤이 부의원간담회를 동부청루상에 소집하고 비밀회라는 문표를거러 일반방청을 금지한후 장시간동안이나원산부청을 위하야 이때에 류임하야달라고 간원하는일방 극력원무한바 잇섯고 뒤니어 원산정내 총대련합회 위원들로부터도 류임을 권고하엿스나 이미 중대결의를하고 비장한 결심을한 부의원들은 그태도를 조곰도 변치안코 다시 즉석에서 부의원들만의 간담회를 열고 최후태도를 결정하고 총사직원에 각각 서명하야 즉석에서 부윤에게 제출하얏다 이리하야 권고도 주효치못하고 총사직문제는 부의원으로서는 일단락이되엿고 나머지 상공회의소 의원들도 부의원에 추종하야 칠일밤에 회합하야 사직원을 수집제출하얏다한다 이사예따라 금후당국자가 원산의각공직자가 총사직한테 대하야 어떠케도를 가겟든지 매우주목된다고한다

府議李弘俊氏談 원산은 공직자로서 가장희당한곳이라고 당국자들도 말하야왓고 우리들도 다른것은 어쨋든사범학교만은 원산에 설치되리라고 미더왓다 그것은도지사가 원산도유력하다는것을언명한점에서도 원산이 가장셩이잇다는것으로 알앗는데 사실인즉 당국은 원산을그만하노라고한일이엿다 이러케 그만둔당하고 동학을당한 우리들은 현지사의처하에서는 도저히 일할수업스므로 부득이 사표를 제출한것이다 운운

元山孤兒院의 六週年記念式

【元山】원산고아원(元山孤兒院)과 부속 춘성학원(春城學院)의 육주년기념식은 지난 팔일 오전십시 동교교정에서 사、오십명시회인사와 학부형참석리에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 조선사회사업협회(朝鮮社會事業協會)등을 필두로 각지에서 축전、축문이 답지하엿스며 원산 무산아동교육기관으로서 오직자경인 이회원의 장래를 위하야 참석한 제씨로부터 의미심장한 축사가 잇슨후 동십이시경에 폐회하엿스며 다시 동교강당에 옮기여 회기만찬회에 일천팔과하든 동교의 공일생을 이약이의 회제로 다과를 난호고 오후일시경에 산회하엿다한다

兩敎員도表彰

【元山】정전퇴직하는 교원과더부터 고향을가리하며 아모보수로가리 무산아동 교육을위하야 정열을바친 원산고아원부속 춘성학원(春城學院)선생김형준(金亨俊)씨와 황유복(黃裕福)씨의그철저한 교육정신에 감복하여동교육주년 그념일인 지난팔일에 동교에서 표창(表彰)을하엿다고한다

國境넘은移民群 三千六百名突破

今年一月부터五月末까지의 —平北道內의統計—

【新義州】평북도내에 산재한농민은 작년령해이후부터 일층생활에 변동을 이르켜 곤궁가운데서 그날그날의 생활을 겨우지지하야가는중 그도계속하야갈사록 빗에 쫏겨분입으로 정들은 고향산천을 등지고 살길차저 만주(滿洲)로 건너가는농민은 매일가티 밀리며 금년정월부터 오월말까지의 이주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移住戶數 一、一六六戶
▲男子 二、一三二名
▲女子 一、四八一名
計 三、六一三名

元山記者團에서 發展座談會開催

【元山】새로창립한 원산신문기자단(元山新聞記者團)에서는 첫사업으로 오는십일일오후 한시부터 시내해성보통학교(海星普通學校)강당에서 원산각계 인사백여명을 초청하야 원산발전좌담회(元山發展座談會)를 개최하고 발전원산에 긔여하기로 하얏다한다

鳳山郡下에橫行든 三人組强盜逮捕

平壤에潛伏中沙里院署員손에 犯人은前科四五犯

【沙里院】지난 륙월삼십일 오전한시경에 봉산군문정면어수리(鳳山郡文井面御水里)리하석(李河錫)의집에 곤봉을들은 강도삼인이 돌연나타나서 주인을협박하며 금비녀(金釵)등을 강탈한후 어데로 종적을 감추엇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사리원경찰서에서는사건 발생이후 비상한활동을다하야 범인수사에 노력중이든바 지난 칠일오전사시경에 사리원서사법계판본(板本)부장이하 형사이인이 평양에출장하야 평양부경상리(平壤府慶上里)박정하(朴定夏)의집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전부체포하엿는데 범인은 모다전과(前科)사범오범의 사리원서리(沙里院西里)홍성권(洪成權)(三三)과 평양부경상리(平壤府慶上里)류영호(劉永浩)(三四)동경상리권성찬(權成燦)(三〇)이라한다

楊平葛山面에 赤痢猖獗

【楊平】양평군갈산면 공흥리(楊平郡葛山面公興里)에 이질(赤痢)이 발생하야 동리아이들 십여명이 알코잇스며 그중사망자도잇다는데 양평경찰서 에서는 급월사입에 출장하야 공의를대동하고 그동리에 출장하야 일반위생에대하야 주의강화를하며 일변간호에 예방소독을하얏다한다

三個年繼續事業의 庫底築港完成

七月十日竣工式擧行

【庫底】일즉이 총공비삼십이만원 삼개년계속사업으로 공사중이든 고저축항은 그간관계방면의 헌신적 노력에의하야 사백미돌의방파제(防波堤)와 백미돌의방사제(防沙堤)및호안공사(護岸工事)까지 전부끗을맛추고 금칠월십일을긔하야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하기로한바 일반고저시민은 이공전의성사를 축하코념키위하야 긔성회와 번영회련합으로 각종여흥준비에 분주하는중인바 그중주요한것으로 어선경조(漁船競漕)농악의경연(農樂競演)광대줄다기 활동사진 기생연주등이 잇슬터인데 발서부터일반의 비상한흥미와 인긔를끌고잇다한다

두少年救하려다가 壯年마저水中魂

牙山郡下에서이慘變

【屯浦】지난팔일오후삼시경에충남아산군둔포면둔포리(屯浦面屯浦里)동아일보분국장 홍창유(洪昌裕)씨의 차남사민(思敏)(九)군과 동리최무섭(崔戌燮)씨의 차남 재영(在英)(八)군의 량소년이 부근내가에서 목욕을하다가 참혹히도 익사하엿다 그광경을본 홍창유씨의 고용인 리복천(李福天)(二一)이가 량소년의시체라도건지라고 내물에 뛰여드러가서 그도가티참사하엿다는데이급보를접한 둔포주재소원은 총동원을하야 노력하엿스나 시체조차 건지지못하엿든바 둔포시장에거주하는 일본내지인 삼명이 얼마후시체를 건젓다고하며 두소년을 위하여 자긔의생명을 악기지아니하고 물에들어가 의사한 리복천에 동정하야 일반인사들은 금이십원을내여 장사를지내엿다한다

萬城市民爲하야 巨額土地提供

鄭養吉氏特志

【萬城】지난봄파종긔에 논바테 씨뿌리기에 여념이업는데 단연히 자긔소유삼천평 현시가 천여원어치를 만성시민들이 유효하게 사용해달나고 희사한이가잇다 그는적수공권으로서 근검저축하야 지금은 만석이게에 지보이며 아울러 이번의 공헌이 만흔이로 이번일은 아서시민전체가 기뻐하는바 이미거의 주인공 정양길(鄭養吉)씨를 차즌긔자에게 그는 말로 저는오직 도라가신 부친의 유지를 따를것외에 아모것도 업습니다라고 말할이엇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新設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高靈支局 位置 高靈邑內 支局長 文三煥

牡丹江支局 位置 滿洲牡丹江市西杜丹街 支局長 金泳根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長湍支局 位置 長湍郡長湍面 支局長 林炳晏 右任 支局長 白賢錫 右解任

支局長 愼允玉 右依願解任

山淸支局 位置 山淸郡邑內 申台弘

謹告

公州支局 記者 金鍾宇 寫眞班記者 金昌俊 右依願解任 寫眞班記者 柳昌烈 右新任

金堤支局 新滄津分局長 朴宗敏 右新任 新滄津分局長 朴宗石 右依願解任

靈岩支局 記者 河憲午 右新任

順天支局 總務兼記者 鄭在鏞 右新任

寶城支局 顧問 崔昌淳 同 丁籌龍 右新任

江陵支局 寫眞班記者 金佑興 右解任

泰川支局 總務兼記者 朴文珏 記者 白殷復 右解任

義州支局 記者 金麗河 記者 趙顯國 右依願解任

碧潼支局 雲塲分局長 朴亨俊 右依願解任 雲塲分局長 金奉洙 右新任

元山支局 移轉位置 元山府銘石町九八 電話(取次)一〇四九番

榮州支局 記者 全奎燾 右新任

奉化支局 總務兼記者 全仁燮 記者 裵增洙 春陽分局長 吳成 右新任 春陽分局長 權潤淳 右解任

大田支局 記者 宋洞用 右任

愛慾의彼岸 【47】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은주는 참아 정면으로 류협을 바라보기가 어려웟다. 보통학교와 야학으로 상업학교에까지 못 다녀본 은주는 모던이즘에 물들 긔회가 업섯기때문에 그의 마음은 다분으로 옛날 조선녀자의 마음이엇다. 그가 비록 어려서부터 가정을 떠낫다 하더라도 그의 엄숙하던 구식가정의 긔풍은 은주의 뼈에 저저잇섯다. 이를터이면 그 긔풍이 빠질 사이가 업서서 아직 송도리채 남아잇는것이엇다. 그 아버지의 근엄한 성품의 유전도 업지아니할것이다. 그 아버지 설산이라는 이름을 가젓던 어머니와, 그 산이라는 이름은 상점번에 해산(海山)한자로 조선을 뜻하는 글자여서 무론 자작 저은 이름이오 호적상의 이름은 아니엇다. 설산은 술을 먹엇스나 비분강개한 회포를 푼다고 먹엇고 혹시 주석에 기생이 들어 오면 그는 지사의 앉을 자리가 아니 라고 하여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가리만큼 그처럼 근엄한 사람이엇다. 그가 실수는 해외로 표랑하엿지마는 그는 열속 노는 게집 하나를 건드려본 일이업섯고 그의동지들도 만히 그러한 사람이엇다. 집을 생각하거나 게집을 생각하거나 제의식을 생각하는것은 그들에게는수치엇다. 그들은 잠시고대까지라도 나라사일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엇다. 그때에는 이러한 긔풍을 가진 지사가 만하서 그들은 대개 은주의 아버지모양으로 집을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해외로 방랑하엿다. 그러한 남편을 가진 생과부들이 조선 안에서 아들、딸을 다리고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면서 동량人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퍽만헛다. 어떠부인은 밥장수를하거나 기름장수를 하야서 아들、딸의 학비를 대고、어떠이는 기숙사에서 밥을지어주는 식모가 되어서 하나바께 업는딸을 공부를 시켯다. 은주의 어머니도 은주를 끌고 흑은 친정으로 흑은 시집일가집으로 눈치스밥을 어더머그며 돌아다니다가 서마 넘지아니하여서 죽엇다.

은주의 어머니는 학교에 다닌 일이 업지마는 우어문을읽엇다. 그러케 교양이 업스면서도 그는 남편의뜻을 이해하여서 어린 은주의손목을 잡고는 남편이 어떠케조흔 사람인것과 은주도 아버지를 닮을것을 누누히 말하엿다. 은주는 지금도 그 어머니가세부란스병원 무료병실에서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은주의 손을 잡고 하던 말을 긔억한다.

『은주야。 너의 아버지는 결코 올치아니한 일을 하지아니하섯다. 거즛말 하시는법 업고、누구헌테 고개 숙이는법 업고。 목이 날아나더라도 바른 말씀은 꼭 하시고 밥을 굶어도남헌테 구구한 소리아니하시고 남이 무엇을 주어도 밧지아니하시고 일생에 남의 여자 엿보지아니하시고。 너의 아버지께서 만주에서 총마저 돌아가신 것도 그 꼿꼿하신 성미 때문이신줄 나는 밋는다。 은주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이세상에서 제일 착하시고 제일 고드신 어른으로 밋는다。 내가 너를 다리고 이러케 고생을 하다가 죽지마는 나는 조곰도 너의 아버지를 원망하지아니한다. 은주야、 네가 커서 아버지와 가티 고든 어른이 되는것을 못 보고 죽는것이 섭섭하지마는 네모습이 아버지를 만히 닮앗스니 마음도 아버지를 닮아서 단단하고 고들줄 밋는다』

을와서 은주를 공부를 시켜보려는 욕심으로 기름스팡우리를 이고다니기를 이래나 하엿다. 혀련이가 은주에게 대해서 멸시하는 생각을 품는 또 한가지 이유는 은주의 어머니가 기름장수엿다는 것이엇다. 우리 이고다니는것을 본 까닭이엇다. 그러나 은주의 어머니는 각극충실으로 죽어버렷다. 각귀를 알는재로 못쳐보련 무거운 핑우리를 이고 결국을 만히 철부것과, 영양이 부족한것과 또모지 치료를 못한것이 그의 죽음을 재촉한것은 말할것도 업다.

그렇지마는 은주의 어머니는 그 남편에 지지안케 마음이 개결한 부인이어서, 제가 살아잇는 동안은 결코 자식을 남의 손에 맛기려하지아니하엿다. 저는 굶으면서 은주를 먹이고, 저는 헐벗으면서 은주를 입혀서라도 독립독행으로 은주를 걸러내라고 결심한것이엇다. 은주의 어머니는 삼십이 열

애독 … 大同製藥社

滋强飲料 カルピス 카루피스

中元! 카루피스다! 가루피스다!

잡수시면 왼家庭이모다기뻐하는 여름의人氣

主成分
骨格을맨드는乳酸칼슘。
發育의素가되는비타민。
榮養의王座를占한各種아미노酸。
爽快한殺菌力이잇는乳酸
活動力의補充하는葡萄糖其他의滋養物

發賣元 … 販賣所 全國百貨店·食料品店·酒店·藥店

美活石鹸 미활비누

新强力殺虫液

에끼가도-루 カトール
파리·모기·벼룩·빈대 해충강력살충
家庭用芳香殺虫液
東京帝大 大槻式先生 有効御證明
安住かとり線香本舖 大阪 安住大藥房

七月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二十世紀폭스超特作映畫 셜리·템플主演 레퓨의愛國者
◇二十世紀폭스超特作映畫 슈맨하잉크夫人主演 로맨스祝盃
◇日活特作映畫 大河內傳次郞主演 新撰組後篇
無宿의猿群 お酒落判官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當る七日常設大公開(六日間)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野崎小唄 花嫁設計圖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特作 野崎小唄 久松に男裝する 久松三津枝 お染に扮する 毛利峰子 お光に扮する 森靜子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映畵界無類의壓倒巨豪篇 七月九日부터納凉特別大公開
RKO超大作日本版 世界大豪文學의覇王아렉산다듀마原作 巨匠로란드∪리ー氏大作品!
三銃士
劍戟의達人 舞臺의名優 월다에ー배루氏主演 허ー사엔질嬢助演
騎士道豪華롭던中世佛蘭西! 劍豪와奸臣! 美女와妖婦가亂入하여展開하는武俠劍戟記錄!
코럼비아社特作全發聲西部劇 옷도ー부라와ー氏監督作品!

明朗篇 花嫁設計圖 原作 中野實 報知新聞連載小說 主題歌タイヘイ吹込 監督 曾根千晴 撮影 古泉勝男 オール・サウンド
山路ふみ子、立松晃 主演 清水將夫、上田寛、大井正夫、野邊かほる、田中絹子、姬宮接子 助演
白石明子、松本田三郎、水野浩、宮川敏子 助演
永樂町 電話②三番 中央館

朝鮮內金融體系

朝鮮銀行發券撤收는 朝鮮立場에서絕對反對

⑥……申泰鎬

그러므로 오늘에잇서서 鮮銀券撤收問題에對한 展望과私見을 말하면 두가지點으로 난우게된다 卽

첫재 요새 그撤收說이 世上에 傳케되든動機는 最近 加藤鮮銀總裁가 東京에 가잇슴을不拘하고 突然 松原副總裁도 이 鮮銀券撤收에對한 東大藏省當局과 協議次東上함을보고 或은 이것을意味하는것이 아니냐고하게 잇섯다 무슨까닭에 總裁、副總裁가 東京으로 모혀들어다고 해서 鮮銀券撤收問題에對한 協議라고는 보는根據는어듸 잇느냐고 할것이다 그러나이에對하야는 前問까지 말한그通貨中에서 完히 차저낼수가 잇는때문이다 卽 鮮銀券發行을 附與한條件이 이미喪失되엇슴뿐아니라 때마침馬場藏相의 金融統制强化로因한 金融機構의單一化의 趨勢를 띄이게되엇슴을보고 鮮銀首腦部의 東京集中을 이곳에다가根據를 두어가지고 結局에는鮮銀券撤收說의 流布를 보에일흔것이다。

×

그러면 이와가튼 論據를正確한것으로 보아야 올흔가 或은 한때의臆說에 不過한것으로 等閑視할것인가함에잇서 나는 後者이라는데 加擔할생각이안든다 이것은 웨 - 그러냐고하면 朝鮮經濟의 特殊事情이 存在되는限엔 日本內地의 金融統制를 그대로 朝鮮에다가 强化할수업는것을 理由로 삼지만 오늘에잇서 內鮮事情이 朝鮮經濟의 特殊事情을 繼續하야 考慮에 넣어줄것가티 안보히는端이 濃厚하다 그러므로 朝鮮銀行設當時보다는 日本內地에 比하야 朝鮮經濟의 特殊性이 多少 減殺되엇다고 하나 아즉도 그條件이 잇슴을 不拘하고 鮮銀券撤收는 不可避的 運命에 빠지고 말것으로 봄이 큰틀림이 업지안흘가 생각한다 또는 지금까지 朝鮮銀券撤收問題를 비롯한 朝鮮內銀行統制에 對하야 財務局 朝鮮銀行當局者는 言明을 避하여오든바 突然昨八日에今井田政務總監으로부터 朝鮮內銀行統制에對하야 言明한바는 무어을 暗示한것인가 이에잇서 그暗示를 엿볼수잇다고생각한다。

×

그러라고해서 鮮銀券撤收는 簡單히 實現될 性質의것이라고 하는말은 決코아니다 그機運이 濃厚하지만 이實現을 보기까지는 아즉도 相當한曲折을 겪지아니할것으로 본다 卽

(가) 朝鮮經濟의 特殊性이縮少되엇다고해서 朝鮮經濟界에 미칠影響을 眼中에 안두고 突進的으로 鮮銀券撤收를 斷行하기는 어려운點

(나) 鮮銀券을 撤收한다드래도 이를 따러서 생기는鮮銀에 對한處理問題가 若干의 難點이 아니다 高橋前藏相時代에 鮮銀處理가 無問題로되엇든바와 가티 지금에잇서도 亦是 손쉽게 處理되기가 어려운問題이다

要컨대 鮮銀券撤收는 거의 旣定的事實로 볼수잇는 그反面에 이로因한附隨的難問題에 對한 對策으로 相當한 曲折을 거듭케될것이다、그러나結局에는 그日標에 接近되여가는途途에 잇다고 생각을 하게된다。

×

둘재 朝鮮의 立場에서 朝鮮內鮮銀券撤收에 對하야는絕對로 反對의 意見을 갓는點이다 卽 中央銀行은 紙幣의 發行權을 獨占하고 잇는 때문으로 通貨의 統制力을 갓게되고 따러서 그 態度如何로 金融市場에는 重大한影響을 밋치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鮮銀券이 撤收케될 境遇에는 朝鮮內의 金融界는 그中心勢力을 일케되는만큼 朝鮮經濟界에 주는打擊이 莫大할것이라는 不安의念을 안가질수업다 이에對하야 或은 鮮銀券이 撤收된다고 하드래도 一般通貨內에잇는 日銀券이 그代身으로 通用케되고 따러서 日銀이 朝鮮內의 通貨를 統制케될것임으로 그대지 支障이 업슬것을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를 考慮치안는 一種의觀見的理論에 不過한것으로 볼수밧게 업다 그撤收의境遇에는 다음과가튼 結果가 생기기쉬울가 한다。

(가) 日銀이 아모리 金融의 圓滑을 期한다고 하드래도朝鮮의 特殊的事情에 適應한 統制는 實際에잇서서 可能性이 薄弱하니만큼 自然 朝鮮內金融의 圓滑을 缺키쉬운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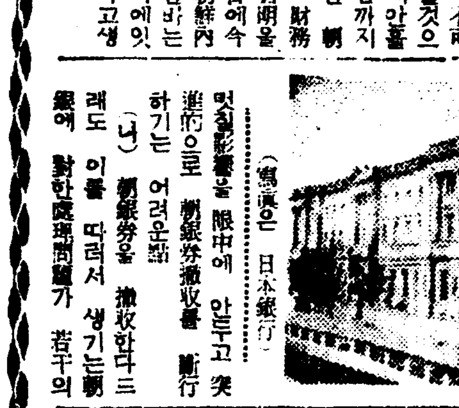
(나) 따러서 朝鮮內 事業資金의 供給에잇서 만흔支障이 생겨 그發展을 보게할不安이잇는點

(다) 朝鮮銀行이 朝鮮에잇서 中央銀行의 機能을 取扱지못하게되면 할수업시 一國의單一化케될것이다 이리케되면諸般 그餘波는 朝鮮內銀行은 分業的單一化의 傾向이 促進되야 事業資金의 需要者에게 威脅을 주게되지안흘가 하는點。

×

以上의諸點에 論據를 두어가지고 朝鮮內鮮銀券撤收에對하야 朝鮮의 立場에서 絕對反對를 아니할수가 업게되고 끄트로一例를 들고자 하는바는 英國에잇서 英蘭銀行으로 全國의 銀行券을 集中하고 잇지만 一面으로 英國과 經濟的事情이 그대지 甚한距離가 업는 蘇蘭、愛蘭에는 依然各各發券銀行을 存續케하고잇는點이다 이로써 보아 아즉도 日本內地에比하야 特殊的經濟事情이 잇는朝鮮에잇서 鮮銀發券을 撤收케함은 到底히 贊意를 가질수업음을 말하게되다。

(朝銀券撤收項目終了)



(寫眞은 日本銀行)

"南大門 東大門"兩市場의 存在無視不能

中央都賣市場問題를調査中인 權威者大野氏의意見

京城府에서는 明年부터 日用食料品의 中央都賣市場을 設置할것을 目標로 各方面으로 調查중하는 一方日本內地에서 中央都賣市場設置에 만흔經驗을 가젓다는 前京都產業部長 大野勇氏를 招請하야 前부터調查文書와 實際事情에關한 調查를하는中인데 大野氏의調査와 그意論은 京城의中央都賣市場設置에重要한 助言이될모양이다 大野氏는 아즉朝鮮全般과 京城中心의 物產集散 또는取引形態等 詳細한調査는 못하엿다고하나 府當局者와 連日協議한바 概略어떤見解는 선모양인데 氏는京城의 中央都賣市場設置에 關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日本內地의 中央市場이라는것은 委託과 競爭의두가지로하는데、이法則이어떤곳이든지全部適用될것이라고는 볼수업다 그러나 京城의 狀況을 보아도 從來부터 委託이잇고 또 一部에는 競賣도 잇는모양인데、市場이라는것은 自然的趨勢에 依한 慣習을 十分參酌하여 그地方에 適當한것을 만들어야 할줄안다、그럼으로京城의 事情으로 말하다면 南大門市場과 東大門市場의 存在를 無視할수업다 物品의 配給關係로 보아도그場所를 또한無視할수업다 그런데 市場의 技能化、經濟化를爲하여서는 亦是朝鮮的特殊事情을 充分히 參酌하여야할것인데 그가티함에는 法制의힘과 取引의勝力實社會的條件의三要素가 잇서야할것이다

▲……南大門市場

▲……東大門市場

市場經營懇談會

十一日府廳에서開催

市場經營의 權威者로서 日本內地重要都市中央市場에關係한 京都市產業部長 大野勇氏가 目下入京中임을 機會로十一日午後二時부터 府廳會議室에서 府內市場의 現況에對하야 產業調查會委員會同下에懇談을 하기로되엇다

朝鮮火災決算

朝鮮火災會社에서는 九日幹部會를 열고 上半期決算案에 對하야 協議하였는데 來十四日 重役會 來月三日 總會를 열고 一、諸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承認의件 二、社長石川登盛氏任期滿了에對하야 改選의件 附議할터인데 業績은 大體前期보다 良好하나 그配當은七分据置의 方針이라고

商銀二支店設置

北朝鮮과南朝鮮에

商業銀行에서는 營業支店網의擴充에 對하야 調查하든結果 北朝鮮의 某新興工業地及 南朝鮮의某有力地에 各各支店을 設置하라고 目下認可申請中인데 이미總督府로부터 內認可가 잇서 近日內로 正式認可가 잇슬터이라고한다

石油既得權問題

內油會社態度强硬 折衝卽時落着不能?

旣得權問題로 七日入京한 日本內地石油會社代表(高草小倉、富岡早山、赤澤(三菱))는 八日總督府를 訪問하고 殖產局長과會見하얏는데 更히九日午前十時總督府를 訪問하고 今井田政務總監 殖產局長等과會見하고 旣得權을 尊重하야 從來대로 朝鮮內의 營業繼續을 要求하야 고陳情要望한바잇섯다 要컨대內油會社로서는 撤退할意見이업고그態度는 意外로强硬한것이잇는데 三菱、小倉、早山은各其相異하고 其他一般의內部的事情이잇서對特約店關係等도 相當히錯綜한事情에잇슴으로 三社間에도그主張의差違가잇는듯한바 總督府의石油政策遂行에對하야서는 理論的立場으로부터 最後까지 旣得權을擁護할方針이 一致되어 同問題를圓滿히 解決할 總督府對內油三社의折衝은 今後繼續될것인데 問題가 政策과 現實의斷絕 우에서잇는마큼 折衝形勢는 相當히紛糾를 難免하리라고 觀測된다한다

小倉特約店會

小倉石油에서는 旣得權問題로 同社高草取締役營業部長의 入京을機會로朝鮮內特約店이 九日京城에參集하야 今後의方針에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엇는데 小倉石油는 三社中가장朝鮮內에서 地盤이오랜만큼 右特約店會議의形勢가注目된다한다

濠洲政府輸入의 許可制擴大發布

日本商品에對하야

【캔베라八日發同盟】濠洲政府는 八日 日本商品에 對하야 輸入許可制範圍擴張特別命令을 發布하엿는데 右發令을 하기前 政府는 羊毛業者를 招致하야 그 意嚮을 듯고 또 시드니駐在、村井總領事의 來訪을 求하야發令함을 通達하엿다 이에 對하야 村井總領事는 다음과 가티通告하엿다 日本政府는 現行關稅制下에서 關稅交涉을 再開할 準備가잇다 만약 濠洲가 報復的態度를 取할境遇에는 交涉再開는 不可能케될것이다

米日爲替弱保

【東京八日發同盟】八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九弗三十七仙으로 一仙低 買二十九弗三十五仙으로 一仙低

▲東京爲替(九日)
對米 賣 二十九弗六分五 買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九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五 買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春繭共販

京城以南은終了 各道十四日後

春繭의 全朝鮮各道共販出廻狀態를보면 京城以南은 全部出廻가 끗나고 平南北、咸南北은 七割江原、黃海兩道는 八割가량의出廻狀態로 作況은 매우 조왓스나 繭質은優良한때문에 解舒成績이 一般으로 不良인모양이다 그러고 此等 各道의出廻도 十日後에는 그全部가 끗날모양이라고한다

取引停止

(七月八日)

▲自動車業 京城府壽松町四六番地 李在演
▲自動車業 京城府公平町六八番地 京水自動車部申用雨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一五番地 合資會社富田屋洋服店 代表社員富田治

經濟界消息

○朝鮮製鍊上期處女配當 朝鮮製鍊會社에서는 十三日決算重役會를열터인데 當期는 製鍊所의操業開始와 附鑛利益을 相當히 計上할수잇게되엇슴으로 多少의處女配當을 할모양이라고

○尾西殖銀秘書課長代理昇任 殖銀秘書課長代理尾西茂樹氏는 今回秘書課長代理로 昇任하야 庶務事務를 擔當키로되엇다고

○東拓淸津出張所開設 東拓에서는 元山支店淸津駐在員을淸津出張所로 昇格하고 同地驛前에 鐵筋콩크리트二層建物의 事務所를 建設키로 決定하엿다고

○煙草耕作組合會議終了 六日로부터 八日까지三日間 京城支局會議室에서 本局信原事業課長司會알에 開會이된全鮮煙草耕作組合理事會議는 豫定의議事를議了하고 本日正午에閉會하엿다고

重要商品界事情

○ 全朝鮮서 二萬三千名을 動員하야 米穀調查

○ 生產高 調查에만 近二萬名이 關係하리라고

○ 調查正確을 否定하는者 아니나 朝鮮米의 根本問題는 生產高 調查 不分明에 잇는것이 아니다

○ 一日 天災緩和 二日 朝鮮米無理强迫解消 三日 農村事情認識에 根幹을 둔 政策 斷行함을 이機會에 거듭 高調코저한다

○ 通商擁護法發動으로 對濠報復을 하엿슴에 對하야 濠洲政府는 輸入許可制 擴張

○ 日本商品의 압길은 갈수록泰山이 막혀잇스니 貿易大勢는 悲觀而已

○ 總督府 石油政策에 對하야 日本內地石油代表 大擧入京하야 旣得權을 主張코 折衝인데 紛糾難免 形勢

○ 獨占權가진 朝鮮石油會社當局으로 「너의들이 朝鮮서 물너가면 設備는 우리가 引受하마」고 배스장이 그럴듯

○ 누가 지나 구경이나 합시다

綿絲市勢

今後分岐點

綿絲市勢는 悲觀材料로 低價에서 헤매이더니 요새 그位置가 變하엿다 그主因은 原棉의 天候市勢에 基한것은勿論이나 一面 아즉現實的이아니어든 弱材料의 緩和와 紡績의實埋方針이 所謂統制의精神에 依하야 調節되는 때문에 一般으로 低價의不安이적어진것이다。

◇ 떠구나 最近에는 冬物需要期의接近으로 近來遠隔方實需의 買動이 期待되는것은 時機만 일흐면 惡材料가될것이므로 안생길境遇에는 買出動을 보게될것이다。

◇ 그럼으로 天候市勢로서의米棉은 어떠한徑路를 밟게될가 이것은 根本問題이다 發表될第一回 作付段別의 局報如何는 市勢의分岐點이 될것으로이것을 안보고 市勢를 豫想함은 無意한바 적어도 端境期內에는 暴騰이 無疑케 될것이다。

◇ 그런데 海外綿布不賣同盟의實施期에 直面하야 다시悲觀을 거듭케 되지안흘가 하는바 이것이 不安性을 띄인事情이라고……

株式 循環高나 區區

商況(九日)

前場上放 今前場은 循環買氣擴大되어 東新百三十二圓三十錢、日產七十五圓十錢、大新七十四圓丁、鐘新百五十八圓五十錢 朝新三十二圓九十錢、日產二十三圓三十錢、北紙二十四圓八十錢、日鑛百七圓丁、拓新二十二圓八十錢에 好勢이고 堅調裡大引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區區 後場은 鐘新百五十九圓六十錢으로 八圓九十錢에 大引되어 好勢이나 東新百三十一圓五十錢、日產七十四圓三十錢 大新七十三圓四十錢、朝新三十二圓五十錢에 鈍甲弛緩大引되고 區區商狀이엇다

大阪株式情報

陸軍의 二次國防計劃에 依한 軍需擴化期待와 北中經濟의積極的援助로 沈滯하던 投機熱이擡頭되어 新東中心으로 堅調를示하고 大新은 下期에 入한後業績不振이나 涖山理事長就任으로 現物市場確立期待로 躍進되엇스며 他採算株는 循環的으로

日產은押目買

株式市勢도 循環高의 理想的步調를示하야 今前場은 東京東新이百三十二圓七十錢에 올랏고大阪大新도 七十四圓臺突破의 好勢이엇슴으로 場面은 비록沈滯하엿다나 顯著히硬化되엇는데 國策階級의 念慮를너무輕觀하며對外事情을 無視코買키는조심되어섯다 日產은 百二十圓가량잇고存續해도 一割配當繼續無疑인 日產은 確然積眼을깨트리고 七十五圓臺乘이며 적어도百圓市勢는잇스리라는 强氣觀이不少하지만 七十五圓까지오고는 한숨돌리고잇다 二府課稅로 解散論이잇는一面에는 根津氏入社說을傳하야 山一證券等이 買換한때문에 急騰되엇다하나 何如間日產은 押目買로臨할수밧게업게된 모양이다 무엇보다도 子會社의業績特히日立、日蓄의好勢가好感되고잇다

商品高를好感

濠洲政府는 日本商品에對하야輸入許可制擴張이나 今朝入電米棉二圓九十年來暴騰으로 綿絲先限二百五圓臺를乘上되엇스며 棉花도急騰되고生絲도七百圓臺를好勢인等重要商品一齊高가 好感되엇다 相當히 買한듯인만큼 人氣投資株에 轉하야 氣乘薄이며 日產은 押目買가 擴散되고 人絹株는 伊太利의 織物輸出活躍으로 警戒되며 紡績株는 原棉高로 採算不良化念慮가잇서 買氣不添이엇다

實物前場取引

▲東滿洲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滿洲세멘트 [illegible] ▲도렛지鑛業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鮮滿開拓 [illegible] ▲日本鋼管二新 [illegible] (取引高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近間發表될三分半借替條件待로 依然活氣薄場面을繼續하고內國債는 全然焦付狀態에終하얏는데 米債는 米價社債物의 好調에伴하야 買氣가잇고 六分半은 二十錢小高로佛貨債도 五錢高의 引締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四五
▲二回四分利 一〇二、四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三〇

期米 柔弱不勢 鈍狀

前場保合 昨後場 阪地三十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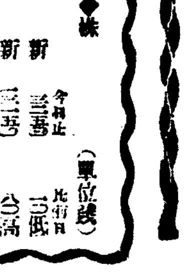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前日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十錢	十三圓五錢
銀	十九錢○厘	十八錢○厘

◆株	(單位錢)	今日止	前日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前日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英[illegible]	不變



㊙……四日三圓高를보인後伸

商勢大體軟調

모도리賣가得策

新甫九月限은 發會後展分爆昧를添하엿스나 朝鮮의中部만이雨量不足으로其他地方은 雨量이洽足하야大體移秧을 完了하고日本內地는一時空梅雨의嫌이 업지안엇스나 其後滿雨를費來하야 悲觀人氣를 一掃하엿슴으로 市勢는各地共히 更伸하지못하고 强而非的形勢로 低落途程에 入하고말엇다 그런데 昨今에 入하야 阪地三十三圓 五、六十錢臺●當地는三十一圓 二、三十錢臺에서 彼返함을보면 低落市勢의一巡된 觀도업지아니하고 一方으로는低落

後場不勢 後場은 三十一圓三十錢에 三十錢로 始場後二十九錢三本同價로 五節二十三錢에 떠러지고 二十六錢에止場하다

三圓五十六錢止와共히 三十一圓三十錢에寄하야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位三十三圓五十五錢인一丁反落을歸하고 三十一圓二十七錢인三丁低로 寄始한後 阪地六十錢으로小戾하엿다가 五十八錢에止場함을伴하야 二十七錢을最低로 八節三十四錢까지 彼返하엿다가 三十三錢에 場을止하엿다

農家態度注目

商却은果何時

言必稱二年繼續凶作이라主張알에집지高米價時代의 到來를期待하고 農家는賣急하지안는모양으로正租一石에九錢五、六厘의高價를維持하고잇다 果然農家의目標한 高價가어데인지는몰으나 淸算市勢로의 阪地三十四圓五十九錢과當地三十二圓七十錢의 高價는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하엿으로는悍의强派로도 戰線을延長하지못하고 利喫을急히할例가 업지아니하며 從하야朝鮮中部의天候不順을 除한外에는 大體好順氣일뿐아니라 不遠한時日에 朝鮮內에保有한 政府米를拂下할모양인데 此가拂下되고 땀아서 土用天候의順調로 期正의反落을招致하는때는 實當農家의恐怖心이업지아니하야 賣却을急히하지안흘가한다 그럼으로 農家의賣物은 米價가올흘때에는停滯되고 米價의反落을 告할때에 續出할것을 足히豫期할수잇다고云云果如何?

㊊……朝鮮內에 保有된 照

(以下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表 [illegible])

堂島前場弱含

【大阪電話】頭上雨含으로 一般天候傍聽의 態度이나 今朝潮先連節買向이엇다 潮先買는 田中貞의 腰入買로 田中은 買進에餘念이업고 賣方도 頭上曇天에 賣込지안허 田中買로 下支이나 一般人氣弱하야 戾待로 市場綿賣人氣의 空氣讓成이오 市勢反落合이다

賣方 朝鮮側、地場投 地場弱
買方 田中貞高橋

米 株
金益證券
仁川 京城
金益夏商店

金·銀·白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小倉商會側)
電話本(2)三三一六番
振替京城五五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送料先方負擔

各地正米

京城不勢 天候不良도잇서 取引이俠少하고 五錢低唱이엇다 丸仁三等卅一圓十五錢 四等卅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卅三圓五十錢

仁川弱含 依然氣傍觀人氣로 場面不振 期米低落移하야 五十錢低氣配이엇다 丸仁三等三十一圓十五錢 四等三十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釜山閑況 依然閑散 買方沈默이오 取引이 極히 依然하며 成立되엇슴이다 此間 弱하야 二七五以의 取引이 [illegible] 等三十一圓 四等 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二十錢

大邱保合 必需當用側의小口買漁가 散見되는程度로 市況은 閑散裏에 保合인 角フ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 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丁

群山不動 依然消極的態度로 商談이 잘안되고 市況이 極히沈靜裡에 保合이오 產地는依然히賣腐態度를繼續하야 角フ三等卅一圓四十錢 四等卅一圓卅錢

木浦少弱 市場賣物薄으로 繼續되나 定期低로 買氣一段衰하고 市勢가 前日보다 十錢低唱이엇다 丸木三等卅一圓六十錢 四等卅一圓卅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朝取期米賣買高

(表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表 [illegible])

京城期米

	寄付	前場	後場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

(表 [illegible])

大阪期米

(表 [illegible])

大邱期米

(表 [illegible])

釜山期米

(表 [illegible])

群山期米

(表 [illegible])

木浦期米

(表 [illegible])

東京短期

東新、大新、鐘新、日產、東株 [illegible]

大阪短期

大新、鐘新、日產、東新、日鑛、同新、帝人、日立、日石、鋼管、郵船、東電 [illegible]

大阪長期

東新、日產 [illegible]

朝取短期 代引日步

朝取、朝新、鐘新、大新、東新、日產、同新、拓新、北紙、日魯、日鑛 [illegible]

大阪正米市場

東京期米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九日)

各地人絹

大阪棉花

大阪綿絲

橫濱生絲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海外砂糖

海外棉花

(表 [illegible])

京城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表 [illegible])

朝鮮銀行券 八日

海外經濟 九日

京城手形交換高

日本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綿布

綿絲布市勢

鋼材市價

日本麥粉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各表 [illegible])